

‘4차산업 기로’ 선 맞수...

‘미래 먹거리’ 향한 투자경쟁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인공지능(AI), 딥러닝, 전장,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에 대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퍼스트무버(시장 개척자) 행보다. 자체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 확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인수 합병(M&A)과 스타트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 주도권 잡기에 나서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4곳의 스타트업에 투자를 단행했다. 가장 최근의 투자는 3일 미국 스타트업인 ‘롬.AI’다. 이곳에 다른 펀드들과 함께 300만 달러(약 32억 원)를 초기(Seed) 투자했다. ‘롬.AI’는 딥러닝 등을 활용해 실제 사람의 얼굴을 토대로 3D 아바타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갤럭시S9 시리즈 ‘AR 이모지’의 기반 기술이기도 하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딥러닝 업체 ‘알레그로’와 AI업체 ‘오디오버스트’, 스웨덴 AI 기반 이미지 및 지도 제작 스타트업 맵필러리에도 투자했다.

LG전자는 2일 아크릴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약 1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33만6000주)를 취득했다. 2011년에 설립된 아크릴은 감성인식 분야에서 높은

삼성·LG, 4차 산업혁명 대비 주요 M&A 및 투자 현황

삼성전자

기업명	방식	사업분야
하만	M&A	전장
롬.AI	스타트업 씨앗 투자	인공지능
오디오버스트	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인공지능
알레그로.AI	스타트업 시리즈A 투자	딥러닝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 스타트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웨어러블 로봇 스타트업 에스지로보틱스와 협력해 로봇 사업과 관련한 ‘개방형 혁신’을 시도했으며, 1월에는 국내 로봇개발 관련업체 ‘로보티즈’에 약 90억 원을 투자해 지분 10.12%(1만9231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두 기업이 최근 유망 스타트업 발굴에 관심을 기울이는 까닭은 포화상태에 이른 가전과 반도체를 이을 미래 먹거리 선점 경쟁에서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외부 수혈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투자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벤처투자, 삼성캐탈리스트, 삼성넥스트 등 자회사 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기술을 갖춘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하기



‘같은 곳, 다른 길’ 간다



LG전자

기업명	방식	사업분야
ZKW	M&A	전장
아크릴	지분투자	로봇
로보티즈	지분투자	인공지능

위해선 펀드를 통해 우리가 어떤 기업이 필요한지 외부에 알리는 게 좋다”며 “지분 투자나 M&A보다 의사결정도 빠르다”고 말했다. 다만 LG전자와 같은 유상증자 등을 통한 지분 매입은 펀드 투자보다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대형 M&A 분야에서는 전장 업체가 주로 타깃이다. 삼성전자가 미국 전장업체 하만 인수로 한발 앞선 가운데, LG전자는 최근 오스트리아 자동차 조맹 업체 ZKW 인수를 발표하며 맞불을 냈다. 특히 LG전자가 투입한 1조4460억 원의 인수 금액은 LG그룹 내 역대 최대 빅딜이다.

전장 분야에서 두 업체 모두 대형 M&A에 적극적인 까닭은 이 분야는 완성차 업체와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진입장벽이 두터운데, M&A를 통해 수주 확보에서 시간 단축의 효과를 얻

을 수 있다. 삼성전자는 2016년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유상증자에 참여, 5000억 원을 투자해 지분 2%를 획득한 바 있다. 또 이재용 부회장은 4일 중국에서 왕추안푸 BYD 회장과의 회동했다.

이처럼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뛰고 있지만, 정작 국내 규제 탓에 과감한 국내 스타트업 인수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트업이 대기업 계열사로 편입되는 순간 성장을 위한 기업 간 거래(B2B)는 ‘일감 몰아주기’, 자금 지원은 ‘부당 지원’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또 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금융회사에 해당하는 CVC(기업 벤처캐피탈)를 보유하지 못한다. 지주회사의 경우 지분 규제도 문제다. 지주회사는 비상장 자회사는 40% 이상,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한다. 최근 SK하이닉스처럼 돈을 잘 벌며 투자 여력이 생겼는데도 지주사 체제 내 위치가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가장 좋은 방법은 세계 곳곳에 있는 최고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실리콘밸리가 미국 IT업계에 큰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인 ‘아이디어 공유’와 ‘모방’을 앞세워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목 기자 syr@

엘시티 ‘비밀의 방’ 열린다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착수

회삿돈 705억 빼돌려 금품로비 유력인사·현역 국회의원도 연루 포스코건설 겨는 ‘조사4국’ 투입

국세청이 2016년 7월 검찰 수사와 함께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부산 해운대 엘시티 다산 인허가를 둘러싼 금품로비, 이른바 ‘엘시티 게이트’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엘시티 게이트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구속)가 회삿돈 705억 원을 빼돌려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인 비리 사건을 말한다.

8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들을 부산 해운에 소재한 주상복합단지 엘시티에 사전 예고 없이 투입,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관으로 실시되는 심층(특별)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엘시티 게이트’가 과거 여느 사건과 비교할 때 중앙과 지역 정치권은 물론 현역 국회의원까지 연루돼 법정 구속된 초대형 금품 로비 사건인 점을 감안,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 씨를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 등의 방법으로 수백억대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십수 명에 달하는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지속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 씨는 엘시티 분양 대행사 대표 A 씨와 공모해 아파트 분양물 상승을 목적으로 엘시티 아파트 123가구를 매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이 씨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17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에 대한 이번 세무조사가 포스코건설과도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엘시티 시공사는 포스코건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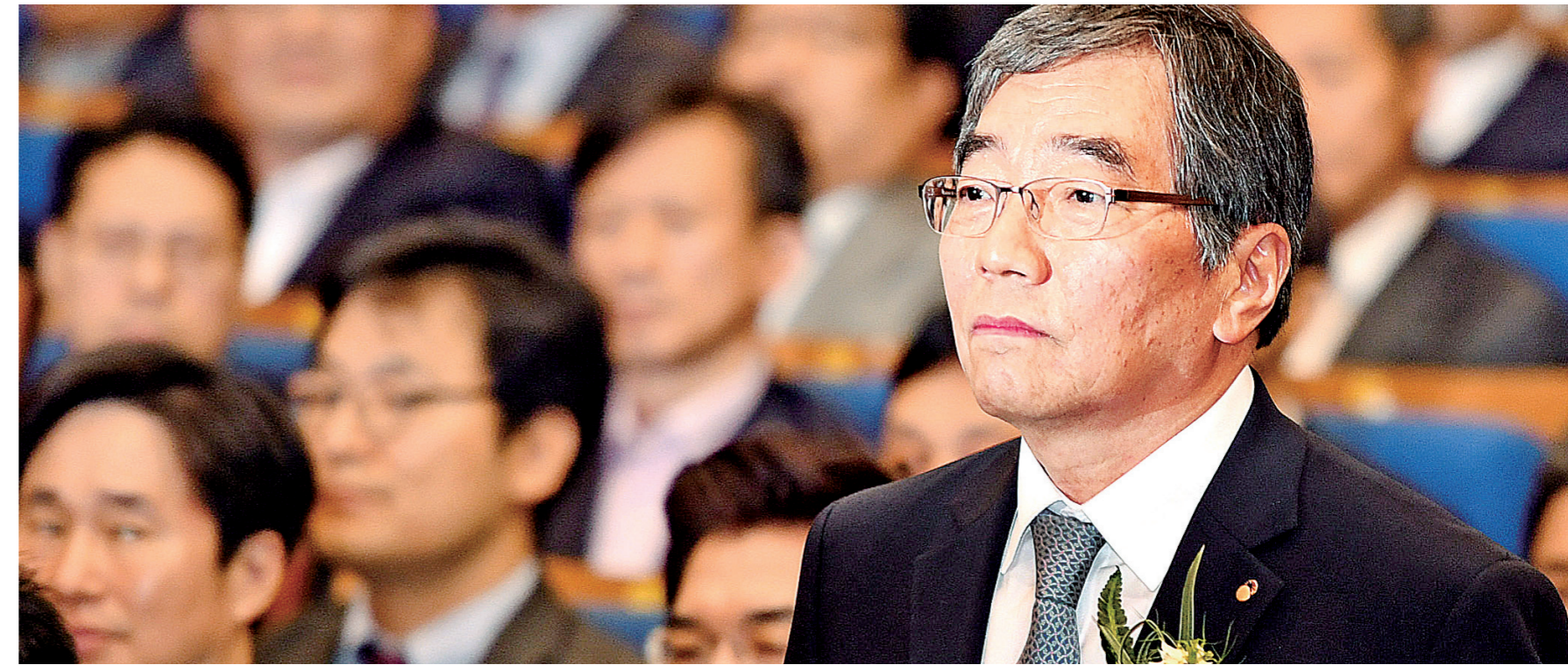
건설업체 관계자는 “당시(2015년 중순) 포스코건설이 비지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도 갑자기 엘시티 사업의 시공을 맡겼다고 나선 것은 매우 의외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후 포스코건설과 이영복 회장 간에 각종 잡음이 있었고, 수년이 지난 지금, 포스코건설과 엘시티가 잇따라 국세청으로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2월 초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4월 초에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재임 시절 포스코건설로부터 약 2000억 원의 하도급금사를 수수하는 등 급격한 성장을 이룬 제이엔테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제13대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이 열린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원 본원에서 윤 원장이 취임식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윤 원장은 금융행정혁신 위원장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으로 활동, 문재인 정부의 금융개혁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손꼽힌다. ▶ 관련 기사 2·8면 오승현 기자 story@

“IT·스타트업 잡아라” 판교로 가는 로펌들

‘한국의 실리콘밸리’ 부상 ‘지식재산권’ 핫이슈... 분사무소 설립하며 고객유치 경쟁

정보기술(IT) 기업과 스타트업이 등지를 튼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로펌이 몰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연다. 판교에 분사를 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IT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고객으로 잡겠다는 의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종은 이달 말 판교 테크노밸리에 분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판교 분사무소를 담당할 세종의 조종일(37·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판교에서 서울로 오가는 시간을 줄여 고객이 편하게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분사무소를 여는 가장 큰 이유”라며 “IT

업체 고객들은 의사결정이 워낙 빨라 속도를 튼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로펌이 몰리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10대 대형로펌 가운데 최초로 판교에 분사무소를 연다. 판교에 분사를 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IT기업은 물론 스타트업까지 고객으로 잡겠다는 의도다.

판교 분사무소에는 투자·합작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임재우(55·19기) 파트너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동건(47·29기)·정준혁(40·33기)·조종일·김남훈(37·38기) 변호사 등 5명이 근무한다. 상주 예정인 조 변호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로펌에 근무하며 스타트업과 IT 기업 투자 자문을 해왔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린다. 네이버·카카오·넥스·엔씨소프트 IT기업과 게임업체 등이 몰려 있다. 교통이 편리하고 다양한 기반시설을 갖췄다. 경부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진입이 쉽다.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강남역까지 14분 걸린다. 엔씨소프트와 현대중공업, 두산건설을 통해 판교로 이전하거나 옮길 계획을 세웠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 1306개사에 임직원 수는 7만4738명에 달한다.

판교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한결은 2014년 이미 판교에 분사무소를 세웠다. 판교에 입주한 기업을 직접 찾아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권에 강한 KCL은 판교는 아니지만, 성남시에 분사무소를 뒀다.

최근 스타트업과 지식재산권 분야는 변호사 업계에서 새 먹거리로 떠오른 상황이다. 초기부터 법률 자문을 지원해 나중에 법률분쟁 발생 시 고객사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광장은 스타트업지원팀을 구성해 경영 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2016년부터 이스라엘 유명 스타트업 투자 기관인 요즈마 그룹과 손잡았다. 판교에 있는 한국 요즈마 캠퍼스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입주 스타트업에 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다. 이새하 기자 shys0536@

인구사상 최고 성장률 달성
3% 성장했지만 고용은 속제
경제로 본 文정부 1년 ▶ 3·4

고개 숙인 제약·바이오株
이젠 ‘육식기리기’ 시동 ▶ 18

“中 판로 확대로 부활”
새내기株 대분석 ④ 힘스 ▶ 20

모바일로 보는 이투데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금융감독 기능에 집중... ‘삼바’ 감리 최종 결과 지켜보아야”

인터뷰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금융산업 진흥-전제 균형 유지해야” 정책·감독체계 분리 개편 의지 이달 17일 임시 감리위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전 논의 금감원은 ‘고의 분식’ 입장 유지 예정...이달 중 증선위 최종 결론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 하는 체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정부가 연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거대 화두를 꺼낼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8면 8일 취임식을 연 윤 원장은 전날 기자와 만나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조금씩 진행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선별리 접근했다가 오히려 망칠까봐 걱정”이라며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소신을 밝혀왔다. 그러나 현재는 정책당국이 아닌 감독당국의 수장인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진행되면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방식으로 조려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치는 것이 골자다. 윤 원장은 지난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때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개념을 정리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에 집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그는 “금감원은 감독에 중점을 두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당분간 그렇게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취임 직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 발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현안 등 굵직한 사안을 담당해야 한다. 또 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절차의 문제점뿐 아니라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윤 원장이 맡아야 할 과제다. 전자는 금융산업, 후자는 재벌그룹의 지배구조와 연관이 깊다. 윤



윤석현 금감원장,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시절 권고 내용

- 금융행정**
 - 금융위, 증선위 의사록 상세 공개
 - 금감원 제재심에 대심제도 도입
 - 기축법의 상시화 또는 연장중단 결정
 - 금융산업과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 유지
 - 이견희 차명계좌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 필요

- 인허가**
 - 인터넷전문은행 인허가 재정비 권고
 - 은산분리 완화와 금융발전의 필요조건 아님
 - 초대형 IB의 건전성 규제, 은행 수준으로 강화

- 인사**
 - 금감원 인사 독립성 확보
 -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 금융지주사 회장 요건 강화

- 영업관행**
 - 신용회복위원회 기능 대폭 확대
 - 키코 재조사 등 재발방지 대응책 마련
 - 금융상품 판매 중지명령권 제도 도입

원장의 개혁 성향을 고려하면 그가 해당 감독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감리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윤 원장은 “그 애기(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다”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더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달 중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종 결정은 증권선물

위원회에서 하나만 그때까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이달 17일 임시 감리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안전을 논의할 예정이다. 감리위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앞서 개최되는 사전 논의의 기구다. 해당 위원회는 김학수 증선위 상임위원, 박권준 금감원 회계전문심의위원, 외부 전문가 등 모두 9인으로 구성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제 신청을 금융당국이 받아들일지 회사 관계자도 감리위에 참석한다. 대심제는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공판을 벌이는 제도다. 지난달부터 시행됐으며 윤 원장 역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때 대심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심제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관측되는 배경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를 중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는 과정이 ‘고의 분식회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감리위에서도 유지할 방침이다. 회계 처리 일관성을 어겼으며 일부 조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판단을 부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향후 파장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최종 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 중 누구에게 힘이 실리는 지에 대한 척도도 보고 있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판단과 달리 보수적 결정을 하면, 최 위원장의 의견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증선위 위원장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있다. 이외 위원은 김학수 상임위원과 조성욱, 박재환, 이상복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3개월 단위 ‘탄력 근로제’ 실효성無... 1년은 돼야”

中企研 “근로시간 단축 안전장치 없다면 中企 납품기일 준수 어려워 고용노동부 ‘일자리 함께하기’ 예산 늘리고 지원 요건 완화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기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납기일 미준수 등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일감이 몰릴 때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 줄여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발표한 중소기업포커스 보고서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취업규칙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단위 기간은 2주이고, 서면합의로 도입하는 경우에는 3개월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짧다. 지난해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 중소기업의 34.1%가 위탁기업과 거래할 때의 애로사항으로 ‘납기 단축 촉박’을 꼽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7월부터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들은 대기업 납품 기일을 지키는 데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인력을 새로 보충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섣뜻 추가 채용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고질적인 구인난’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선진국 수준에 맞춰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중소기업계의 현장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근로시간 계산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면 상대적으로 덜 바쁜 기간에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노 연구위원도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길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정 기자 puri21@ 전효점 기자 gradually@

미국, 일본,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최대 단위 기간은 1년이다. 일본은 노사 협약에 따라 ‘특별조항’을 넣으면 연중 6개월 동안 별도의 제한 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합의로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다. 아울러 노 연구위원은 “일본·프랑스 등처럼 우리나라도 노·사·정이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방안으로 “근로시간 단축 이후 생산성 향상과 교대제 개편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신중 ‘기업 등급 쇼핑’ 관행 막는다” 신용평가계약 관련 제도 개선 추진

신평사 신용등급 통보後 계약 해지 제한 증권신고서에 체결·철회 내역 기재해야

계약 해지를 약용해 우수한 신용등급만 골라내 확정·공시하는 신중 ‘등급 쇼핑’ 관행에 철퇴가 가해진다. 8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증권 발행사의 경우 다수의 신용평가사와 평가계약을 체결한 후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관행이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한 신용평가계약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등급 쇼핑”으로 불리는 이런 행위는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에 평가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일례로 증권 발행사인 A사가 3곳의 신평사와 신용평가계약을 체결한 뒤, 높은 평가만 확정·공시하고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곳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이는 평가계약 체결 후 계약 해지나 미공시 전환, 신용등급 철회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이는 신중 수법이다. 평가계약 체결 전 좋은 신용등급

을 선택하던 종전의 ‘등급 쇼핑’과 구분된다. 자본 시장법상 규제를 위한 별도의 방지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을 틈타 신중 수법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관측된다. 금감원은 신평사가 계약 해지 문제를 격정해 발행 증권에 대해 독립적으로 정확한 평가의견을 부여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발행회사의 의사에 따라 신용등급 공시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회사채 발행금리 산정과정이 왜곡될 우려도 있다. 채권의 발행금리는 가장 낮은 신용등급에 대한 채권평가사들의 평균금리를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후 금감원은 유사한 형태의 ‘등급 쇼핑’을 차단하기 위해 증권 발행회사가 평가등급을 통보받은 후에는 계약을 철회하거나 신용등급을 미공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발행회사가 증권신고서에 평가계약 체결·철회 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해 시장 규율을 유도하고 등급쇼핑의 유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 계약 취소·철회, 평가등급 공시·미공시 전환 내역을 정기적으로 받아 새로운 유형 등급 쇼핑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굿네이버스

지난 10년간 1,800만 통의 희망편지를 통해 지구촌 어린이들에게 꿈꿀 수 있는 내일을 선물했습니다

희망편지쓰기대회는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올해 주인공 ‘사이먼’의 영상을 만나보세요

3년 만에 3%대 성장 성과... 최저임금·근로단축 등 해결과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은 한국 경제 성적표는 외형적으로 2017년 경제성장률 3.1% 성장, 17개월 연속 수출 증가,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업자와 청년실업률이 2000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구직자 공공부문 일자리 쏠림현상 심화,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부진, 부동산 양극화 심화 등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특히 문 정부의 경제정책인 '제이(J)노믹스'에는 '친기업 시장정책은 없다'며 재계에서는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J노믹스'는 문 정부의 경제 정책인 '사람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와 이를 위한 '소득주도성장'이 핵심 키워드다. 'J노믹스'를 진두지휘하는 핵심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을 필두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인사 난맥으로 문제가 많았던 금융감독원장으로 대변할 수 있다. 새로 윤석현 신임 금융감독원이 합류하면서 올해 본격적인 'J노믹스' 실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년 동안 문 정부 경제팀은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이끌었으며 근로시간 52시간 단축,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문재인 케어' 도입 등을 주도했다. 무엇보다 삼성 등 재벌개혁을 통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정부의 'J노믹스' 1년은 반도체 호황과 맞물려 외형상은 합격점을 받았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는 3년 만에 3%대 성장률을 회복해 3.1% 성장했다. 올 1분기 성장률도 전분기보다 1.1% 성장해 올해도 3% 성장률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지난해 2만9745달러를 기록해 올해 2006년 2만 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에 3만 달러 돌파를 가시화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 생산가능인구 감소세가 가시화되면서 고용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3%대 성장 전망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 가시화 남북관계 개선·세일즈 외교 등 진전

치솟는 청년실업률 '고용부진' 여전 반도체 호황 제외하면 수출 흔들 부동산 규제에 양극화 가중 지적도

이 실업률과 청년 고용은 사상 최악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청년 구직자들은 '공무원 취업'에만 집중하는 분위기여서 향후 공무원 증가는 세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만큼은 본인이 직접 챙기고 있지만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또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큰 축인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16.4% 인상해 가계 실질소득과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정부가 이에 따른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없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외식 물가도 줄줄이 인상하고 있어 오히려 서민들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는 '나비 효과'를 불렀다. 실제 지표에서 올 들어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18만 개 이상 줄었다.

문 정부 출범 후 공공행진을 이어가던 수출도 반도체 호황을 제외하면 흔들리고 있다. 4월 수출은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한 데다 반도체와 유가상승을 제외하면 최악의 수출 성적표를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를 타개하고자 문 대통령은 숨 가쁜 세일즈 외교를 펼치며 외교 다변화를 통한 수출 패러다임 변화에

지난 1년 전력을 다했다. 기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 외교 중심에서 탈피해 다자간 외교로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균형 외교'론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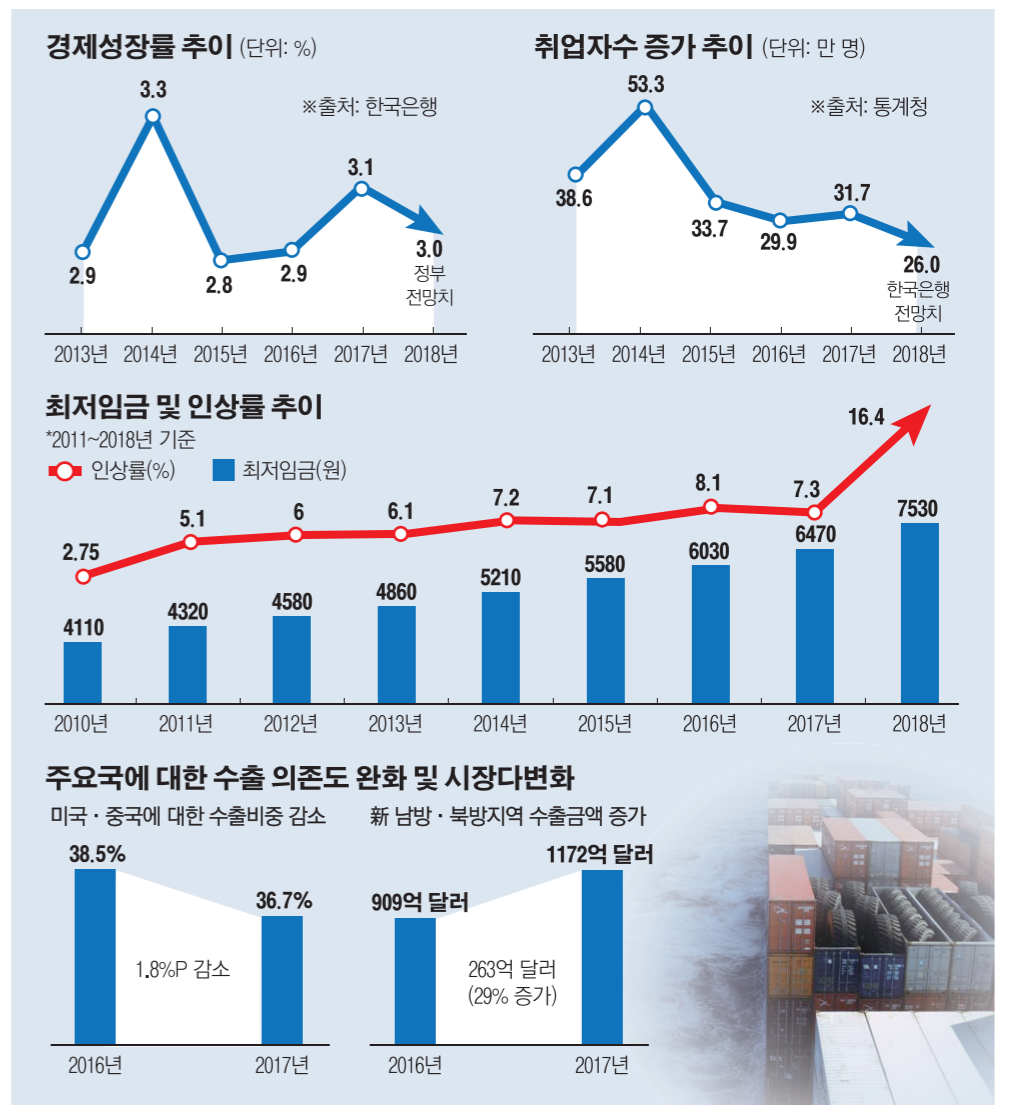
문 대통령은 올해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베트남과 '신(新)남방정책'의 교두보를 확보했으며 UAE와 석유·가스분야 250억 달러 협력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도 7개 국가를 순방하며 정상회담만 40차례 하는 강행군 펼쳐 '신(新)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선언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그리는 데 전력을 다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소원해진 4강 외교를 복원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를 완전히 해제시키지 못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여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밖에 문 정부의 다주택자 투기를 겨냥한 강력한 부동산대책은 실제 강남 집값만 올리고 지방 집값은 떨어뜨리는 부동산 양극화만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문 정부의 최대 지적으로 꼽히는 남북관계 개선은 현재 진행형이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 이뤄진다면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어 향후 우리 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점에서 'J노믹스' 평가를 남북 관계 정상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우세하다.

신동민 기자 lawsdm@



개혁 '갈날'... 불편한 재계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정책

부처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정책	세부 사안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지주사 공정거래 조사 직권조사 지배구조 개편	자회사 공정거래 및 브랜드 사용료 점검 전속고발권 폐지 및 대기업 집단 조사 확대 편법승계 및 순환출자구조 개선
법무부(상법 개정안 검토 의견)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 소송제 전자투표제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 의무 적용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자본 50% 초과 자회사 대상 주요 상장사 의무 도입 및 주주권 강화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개정	최고세율 22%→25% 상향

“잇단 기업 때리기... 경영환경 악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법인세율 인상 등 부담 가중... “속도조절 필요”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의 활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경영 환경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는 자국 산업 보호를 앞세운 보호무역주의를 공론화하고 있다. 한국 기업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전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사실상 첫 대면인 만큼 재계는 김 위원장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의 위상을 강화해 ‘경제 검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쉽게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재계 관계자는 “역사적으로 정권 교체 직후 대대적인 사정작업과 기업개혁 정책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처럼 전방위적이지 않았다”며 “큰 틀에서 정부 정책을 존중하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도 본격화했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 골자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

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7명의 이사진 중 절반(감사위원 3명+일반 이사 1명) 이상을 투기 자본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외국계 투기 자본에 사실상 공격권을 넘겨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순환출자구조 개편에 나섰던 현대차그룹도 투기펀드 엘리엇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법인세율 인상도 기업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되는 22%다. 김대중 정부 27%, 노무현 정부 25%로 내린 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2%까지 내려왔다.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평균이 22.5% 수준인 상황.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과세 표준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2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줄줄이 감세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국받은 일본도 법인세 실효세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최근 전문가 8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3.7%는 문재인 정부 재벌정책에 대해 “역대 정부보다 개혁성은 있지만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답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나 오늘 변한 거 없어요?

AlphaONE

혜택에 딱 맞게 바뀌는 **KB국민 알파원카드**

알파원 카드 특혜취득 (연도: 연도 별 혜택) 3년 이상 보유 시

알파원 오토체인지 (Auto Change)
 KB국민카드 앱에서 #커피 #의식 #주유 등 카테고리별로 결제카드를 설정하면 쓸 때마다 설정된 카드로 알아서 바뀌어 결제하는 스마트한 카드 결제 시스템

*연체료율은 약정이율 +3%p, 최고 연 24%(고객별/기간별 차등적용) *신용카드 납음은 가계경제에 위험이 됩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카드 신청 시 상품명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KB국민 알파원카드의 서비스는 결제 처리되는 카드의 상품명 약관에 따릅니다. • 연체 발생 시 약정금리가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일시불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지 할부금리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 거래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지 할부 금리). • KB국민 알파원카드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상의 180425-01203-ADP (2018.04.25)

KB국민카드

인건비 부메랑 맞은 中企... 소득주도 성장 그림자

부동산 정책

“가격·투기 잡았지만... 분양시장 양극화 심화”

소상공인 '근심'

문재인 정부의 내바퀴 성장론과 그에 따른 기업 및 고용 정책이 중소기업에게 미친 영향은 '일보 전진, 일보 후퇴'로 요약된다.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 정책 기조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 거래 문제에선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준 반면 고용·노동 문제에서는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높이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공정거래' 부분에서 정부는 중소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을 닦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공정위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에 이어 중기부의 중소기업 기술창업 근절대책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 등은 '기술이전 운동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중심 경제로 대변되는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 특히 혁신성장과 공정거래 확립 등에 따른 대·중기 정책이 아직 자

중소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수준 높아" '52시간 근로' 年 12兆 비용부담 등 전망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개선은 긍정적

리 잡지 않은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올해부터 당장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아직 얻은 것은 없는데 잃을 것만 늘어났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중소기업 160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은 올해 적용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높다'고 평가했으며 최저임금 인상 등 고용 환경의 변화로 올해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는 기업에 연간 12조 원의 비용 부담과 26만여 명의 인력난을 야기할 전망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부분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고용 축소나 자동화 투자 등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고 나섰다. 실제로 올 들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한국사회 노동을 새로 쓰자'를 주제로 열린 2018 세계노동절대회에 참가한 민주노동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하며 종로4가 방향으로 소파가트를 밀며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 취업자수 증가폭(전년 동기 대비)은 2월과 3월 각각 10만4000명과 11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 명대 초반에 그쳤다. 3월 실업률(4.5%)은 17년 만에, 청년실업률(11.6%)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난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도가 정반대의 효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이전 정부에 비해서는 진전됐지만 고용 및 일자리 측

면에선 보완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혁신성장 정책이 성공하려면 정책 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기술탈취, 하도급 거래 등 중소기업에게 가장 심각한 대기업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해소·완화한 것은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적폐 청산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금융 정책

금융사·삼성 등 대대적 청산작업 집중
금감원장 줄마로 개혁 속도 제동
초대형 IB·은산분리 등 뒷전으로 밀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간 강도 높은 금융 혁신을 추진했지만,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당면과제들을 해결하고 금융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 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 촉진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주요 금융사와 삼성그룹 등을 금융적 폐쇄력으로 규정하면서 금융혁신은 뒷전으로 밀리고 혼란만 양산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상존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장이 두 차례나 낙마하면서 금융개혁 속도에 제동이 걸리면서 신(新)관치 논란이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됐다.

금융권 한 인사는 "금융 혁신은 국민이 바라는 숙원으로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가 추락하면서 금융 혁신 과제들이 자취를 감췄다"면서 "하나금융 등 주요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청산 작업에 집중하면서 정작 정부 출범 초기 정부가 제시한 금융 혁신 과제들이 뒷전으로 밀리

문재인 정부 1년 금융권 일지

2017년 7월	최종규 금융위원장 취임
9월	최홍식 금감원장 임명(최초 민간 출신 임명)
10월	우리은행 채용비리 의혹 제기
11월	이건희 삼성전자 부회장 채용비리 논란 제기 은행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 금융당국 vs KB, 하나금융 지배구조 갈등
2018년 1월	국민·하나은행 채용비리 적발
2월	검찰, 은행 채용비리 수사 본격화 법정 최고금리 24% 인하
3월	최홍식 원장 채용비리 연루 사퇴
4월	김기식 원장 취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김기식 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사퇴
5월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석회계 결론 발표 윤석현 금감원장 취임

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홍식·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하나·KB금융과 지배구조 개편을 놓고 '강대강 대결'을 펼치다, 결국 채용비리 의혹과 외유성 출장 의혹 등으로 불명예 퇴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는 초대형 투자인행(IB)·은산분리 등 본업인 금융 혁신의 부진으로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금융회사들과 재계가 지 옥되면서 정작 금융 혁신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IB 등 정책은 묵혀 두거나 국회로 책임이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이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은 상태다.
인철우 기자 acw@

南北 봄비람... 코스닥 상승률 역대 최고

증시는 '환호'

문재인 대통령 취임 1년간 우리 증시는 성공적인 상승 흐름을 보였다. 코스닥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문 대통령 취임 후 이달 4일까지 코스피지수는 7.35% 상승했다.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지난해 초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코스피는 문 대통령 취임 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친화정책 강화 등 정책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했다.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1월 2600선을 돌파했지만, 최근 미국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4월 2461.38로 마감했다.

상승 폭은 코스닥이 더 컸다. 코스닥지수는 같은 기간 643.39에서 856.34로, 33.10% 경 추였다. 이는 1996년 지수 출범 이후 취임한 대통령 5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 코스피 강세에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던 코스닥은 문재인 정부가 중소기업과 코스닥 활성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상승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약 10년 만에 800선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초(2월 1일)에는 증가 기준 900선을 넘어섰다. 최근 들어 제약

대통령 취임 이후 33.10% '경추' 주주친화 등 코스피도 사상 최고치

·바이오 종목의 조정으로 850~860대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증시와 관련, 성공적인 정책을 펼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인환 SK증권 연구원은 "업종별로 살펴봐도 우리 증시의 중심은 IT업종은 물론 건강관리업종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끌어냈다"면서 "특히 코스닥은 30% 넘게 상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코스닥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효했다"라고 설명했다.

증시 전망도 대체로 낙관적인 분위기다. 특히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지난 1년의 상승 흐름을 넘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충분한 실적과 기업 가치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및 주주친화 정책 미비로 글로벌 증시 대비 저평가됐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만 전망이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을 열어주고, 현대적인 주주자본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점은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혜은 기자 euna@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편견을 걷어내면 능력이 보입니다!

장애가 아닌 능력을 바라볼 때,
함께 일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취업 전 준비부터 취업 후
직무까지 체계적 지원



직업능력개발
장애인의 능력을 키워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



기업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 준비부터
관리까지 체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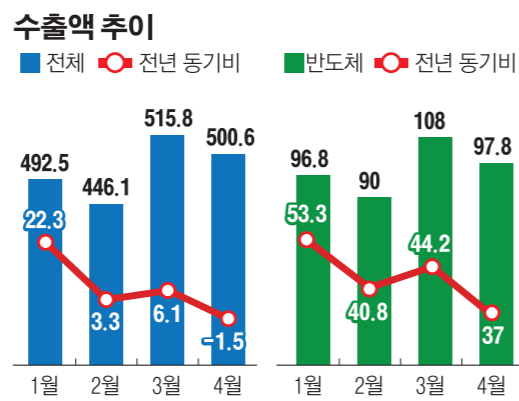


연구개발
장애인의 고용의 미래를 여는
연구개발 사업 수행

전국대표번호
1588-1519
www.kead.or.kr

“성장도 고용도 둔화…반도체 호황 이후를 준비해야”

모멘텀 못 찾는 경제…우려 목소리
경제 버팀목 하던 수출마저 꺾여
반도체, 일자리 창출 산업 아냐
단기적 고용 개선도 기대 힘들어
올해 성장률 3%→2%대 전망도



글로벌 호황을 맞은 반도체를 등에 업고 질주하던 수출 증가세가 1년 6개월 만에 멈춰 섰다. 반도체를 대체할 만한 수출 품목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활황기가 지나면 경제성장률도 주저앉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에 전문가들은 산업별 수요 파악을 서둘러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8일 정부 경제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97억8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 급증했다. 1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다.

전체 수출이 500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 감소하며 18개월 만에 꺾인 것과 대조적이다. 반도체가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은 19.5%에 이른다. 산업생산과 제조업평균가동률, 설비투자, 건설기성, 고용 등 최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반도체 호황 이후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전반적으로 성장이 완만해지는 모습”이라며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여전히 커서 지난해 하반기에 정했던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KDI는 지난해 말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경기 개선이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도 가시적인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우리 경제의 단기적 경기 개선도 반도체 가격 하락 및 유가 상승 등 교역조건 악화나 주요국 정책 불확실성 등의 위험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같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세 전망에도 불구하고 예상을 하회하는 성장 경로를 나타낼 가능성을 안고 있다.

김 부장은 “반도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산업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 문제의 빠른 개선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 등 이제는

인기 없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을 판별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것을 막으려면 수요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한다”면서 “근로자들 때문에 기업이 연명하는 상황이 되지 않게 해야 하는데,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실행력을 담보하는 규제 개혁의 청사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화정책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도 인상하는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용 지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8년 국내의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기저효과로 성장세가 높아졌지만 2분기부터는 전기 대비 1% 성장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년에는 2%대 중반 수준까지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 시장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핵심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창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서비스와 주택건설 부진으로 노동력에 대한 수요도 둔화하면서 취업자 증가 수는 지난해보다 10만 명가량 줄어든 20만 명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정필 기자 roman@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1월 일시납부 가능

국무회의, 법 개정안 의결…기초연금 수급자 통신비 감면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하고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바꾼다.

정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휴대전화 서비스 등은 사회·문화·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나, 통신사업자는 고가 요금제를 사용하는 이용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요금제에 대해서만 요금은 낮추고 데이터 제공량은 늘리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반면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가 요금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기피함에 따라 저소득 고령층의 통신비 부담이 점차 가중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의 통신비를 감면해 주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동통신사가 특정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만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 상한액을 매출액의 2%로 정하는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정부는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유차를 보유한 장애인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도 1~3급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경찰공무원의 보수가 2.6% 인상됨에 따라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도 이를 반영해 올리도록 청원경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호봉 봉급은 월 153만900원이다.

이와 함께 철도의 날을 9월 18일에서 6월 28일로 변경했다. 기존 철도의 날은 한반도 침탈을 목적으로 건설한 경인선 개통일(1899년 9월 18일)을 기념하고자 일제 강점기인 1937년 지정됐기에 일제 잔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일제 잔재 청산과 민족 자주성 회복 차원에서 철도의 날을 우리나라 최초 철도국 창설일(1894년 6월 28일)인 6월 28일로 변경했다. 정부는 이날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박병기 기자 riby@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영균 통일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5일 백령도 해방60여단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서해 평화수역 조성’ 장성급 회담 주의제 논의

통일·국방·외교·해수 4개 부처 장관, 연평·백령도 방문 주민 의견 청취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을 통해 밝힌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8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5월 중에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이 주요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조영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5일 연평도·백령도를 찾아 간담회를 통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결과인 ‘10·4 선언’에서도 서해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남북은 실질적 해상경계선인 NLL을 기준으로 동일 면

적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한 반면 북측은 NLL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해상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서면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해 해상경비계선은 NLL 이남에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북측의 태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판문점 선언에서 ‘NLL’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썼다. 북이 공식적인 문서에 서해 NLL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남북이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해도 공동어로 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각자 어로활동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수산물 수출, 조업권 거래, 해상 파시(波市) 등은 대북 제재가 해소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곽도훈 기자 soqood@

‘재벌개혁’ 노웅래 vs ‘GM 해법’ 홍영표

민주당 집권 2년차 원내대표 11일 선출

문재인 정부 집권 2기를 책임질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가 11일 선출된다. 5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며 민생 입법이 시급한 때에 누가 선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왼쪽 사진)과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원내대표 후보로 등록, 추첨을 통해 각각 기초 1번과 2번을 받으면서 ‘2파전’이 치러진다.

8일 노 의원은 야당과 협상해 분식회계 근절 등 투명성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입법을 진행,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 양형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특히 삼성그룹과 한진그룹의 최근 행태를 지적하며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갑의 횡포근절, 사회적 약자인 하청·하도급 협력업체 등 이른바 ‘알’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농단 세력에게 뇌물제공 등의 혐의로 구속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관련 건은 봐 주기 식 판결”이라며 “이 부회장이 풀려난 뒤에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이 또다시 터졌다”며 재벌기업의 불투명한 경영사태를 꼬집었다.

홍 의원은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한국GM 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한국GM 위기 대처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당·정·경이 긴밀한 논의 체계를 갖고 원칙을 세웠다”며 “노사 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한국GM을 조기에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주도 책임여당을 목표로 상임위원회 중심 원내운영 및 당·정·청 국정운영체계 강화와 책임의원 중심 당·정·청 상시 소통체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Sulwhasoo

雪花秀

Sulwhasoo

MEN

INNER CHARGING SERUM

본운에센스

부드러움 속에 흐르는 강인함, 독보적인 격을 지니다

설화수 맨 본운에센스

나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남자의 피부는 근본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설화수의 안티에이징 정수가 담긴 정양단이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 주름, 탄력, 칙칙함을 한번에 케어해주는 설화수 맨 본운에센스. 시간 앞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남자의 피부를 완성해줍니다.

• 설화수 플러그인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링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facebook.com/sulwhasoo.official • 플러그인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기초연금 수령액 '노령연금' 보다 줄었다

연금액 조정기준 '소득 → 물가' 변경後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 따져보니 3년간 24만원 적어

물가상승, 소득증가율보다 낮은 탓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2015~2017년 3년간 수급노인 1인당 수령액이 이전 기초노령연금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24만 원가량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의 연금액 조정 기준을 이전의 '평균소득 증가율'에서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변경했는데, 지난 3년간 물가 상승률이 소득증가율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정부는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4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실질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에서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률은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편이다.

기초연금이 기초연금액을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계해 조정하는 것과 달리

기초노령연금은 그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증가율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연금 지급액을 인상했다.

IMF 외환위기가 세계금융위기 같은 극단적 경제 악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증가율은 물가상승률보다 높다. 실제로 2015년의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에 그쳤지만, 실질 소득상승률은 2.7%로 훨씬 높았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시행 5년째를 맞아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에 들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올해 9월부터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이미 기초연금액을 상향 조정한 현실을 감안해 기초연금액 급여 적정성 평가는 5년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은평 기자 pepe@

어버이날, '孝'의 의미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김동욱 서예가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孝' 서예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살자 유족, 한 해에 7만명 달해

그들의 자살률 일반인의 8.3배 정부, 심리치료비 지원하지만 울들어 신청자 160명뿐 사회적 관심 높일 방법 찾아야

우리나라에서 한 해 발생하는 자살자 유가족은 7만 명이 넘고, 이들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8.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최대 300만 원의 심리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는 25.6명(2016년 기준)이다. OECD 평균 12.1명의 2배가 넘는다.

국내 연간 자살자는 1만3000여명으로,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 주변에 있는 5-10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계산하면 지난 10년 동안 자살 유가족은 최소 7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자살은 당사자는 물론 남겨진 가족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남긴다.

자살 유가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평균 8.3배나 높다. 자살자가 남편인 경우는 16배, 아내의 경우는 46배에 달한다.

'자살 사망자 심리부검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살 유가족 352명 대부분 사건 발생 후 일상생활의 변화와 더

불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 대부분(80.1%)은 우울감을 느끼고, 이 중 95명(27.0%)은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다. 수면문제(36.4%)나 음주문제(33.8%)를 경험하는 이들도 많았다.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가족의 63.6%는 고인이 자살로 숨진 일을 사실대로 알리지 못한 적이 있다고 했다. 자살에 대한 부정적 편견 때문이거나 이 같은 사실을 들을 상대의 충격을 걱정해서, 유족을 비난할까봐, 고인의 자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른 가족이 자살을 따라 할까봐 등이 이유였다.

이구상 중앙심리부검센터 부센터장은 "자살 유가족은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자살 예방 차원에서라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유가족에게 최대 300만 원의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유가족에게 1인당 140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심리검사는 최대 40만 원까지, 심리 상담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4월 말 현재 심리 치료비 지원 신청은 16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평 기자 pepe@

"기준역률 어긴 코레일, 한전에 전기료 추가로 내야"

(공급대비 실제 사용 전력 비율)

추가요금 청구 알릴 의무 없어 법원 "1억2700만원 지급하라"

기준역률 이하로 전기를 사용했다면 한국전력이 관련 조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사용자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철도공사는 한전에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1억27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철도공사에 역률에 관한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기기본공급 약관에 따르면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역률에 따른 추가 요금 내용을 담은 약관에 미리

승낙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내용은 한전 사업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사가 2011년 6월께 역률이 저하되는 것을 발견하고 한전에 이를 통보한 적이 있다"며 "철도공사는 역률의 개념을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역률이란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 중 실제 사용하는 전력의 비율을 말한다. 전기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전기 사용 고객은 기준역률을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준역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한전이 추가 요금을 청구할 것을 미리 알리지 않아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철도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관은 첫 번째 달에 추가 요금의 청구를 예고하고 두 번째 달부터 추가 요금을 청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전이 추가 요금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추가 요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준역률을 지키지 못해 추가 요금이 발생한 첫 달의 요금은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추가요금채권의 시효가 소멸해 2013년 11월 이전의 추가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추가요금채권은 월 단위로 발생하는 채권이기에 때문에 민법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전월의 요금을 매월 1일 정기검침일에 납부한다고 할 때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2016년 11월 3일에서 3년 전인 2013년 11월 3일 이전에 발생한 추가요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돼 소멸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사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기준역률 90%에 못 미치는 전력을 사용해 추가 요금이 발생했지만 내지 않았다. 이에 한전은 철도공사를 상대로 3억5000여만 원의 추가 요금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며 2016년 소송을 냈다.

박미선 기자 only@

29개월 영아 '찌꺼기'라 부른 어린이집 보육교사 無罪 확정

생후 29개월 된 영아에게 '찌꺼기'의 경사도 사투리인 '찌꺼레기'라고 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도 부천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김모(32)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6년 8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이반 왜 이래 다들? 찌꺼레기처럼, 진짜. 야, 한복도 없어, 내가 사줘?", "응? 너 일어나, 야 너는 찌꺼레기! 선생님 얘기 안 들리니? 대답해", "빨리 먹어야 찌꺼레기들이라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찌꺼레기란 표현이 어떤 사람을 지칭할 경우 모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표현인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육교사들의 표현들이 2세 영아의 정서적인 발달을 저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시 '2018 여름 종합대책' 풍수해·대기질 등 상시 대응

서울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2018 여름철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5일부터 5개월간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해 종합 대책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엔 대기질 대책을 마련했다. (초)미세먼지가 생활의 불편이 아닌 건강과 생명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시 대응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풍수해 피해 등으로 집을 떠나 임시 주거시설(공공건물, 학교 등)에 머물러야 하는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실내 구호용 텐트 1000동을 신규 제작해 지원할 계획이다.

폭발추진 밀집한 4개 지역 소방서(중

로, 중부, 용산, 영등포)에서만 이뤄졌던 폭염 순찰활동도 24개 전 소방서에서 시행된다. 순찰 대상도 노인복지관 등 폭염 취약계층 이용시설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여름철 종합대책 폭염, 수방, 안전, 보건 4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폭염 대책으로 3개 반 총 16명으로 구성된 '폭염 상황관리 TF'를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별도 폭염종합지원 상황실을 꾸려 현장점검·피해복구 등 단계별 대응을 한다.

풍수해로 인해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건물 및 학교 등 965개소에 임시 주거시설을 지정하여 68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폭우 시 재난 단계별 대중교통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한다.

서지희 기자 jhsseo@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바이로봇
APT Shield 2.0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중로구 율곡로 238 (예일빌딩)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함께, 행복의 크기를 키우겠습니다

SK는 오늘도
사회의 다양한 바람들과 만나
기업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그려갑니다
모두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도록
SK도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행복하도록



윤석헌號 출범... '금감위' 재등장 하나

금융국 일부 금융서비스국으로 이관 6~7월께 인사이동 예고
文정부, 정책·감독 분리 검토 1년 만에 조직개편 논의 속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조직개편 작업이 없던 금융위원회도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불발작업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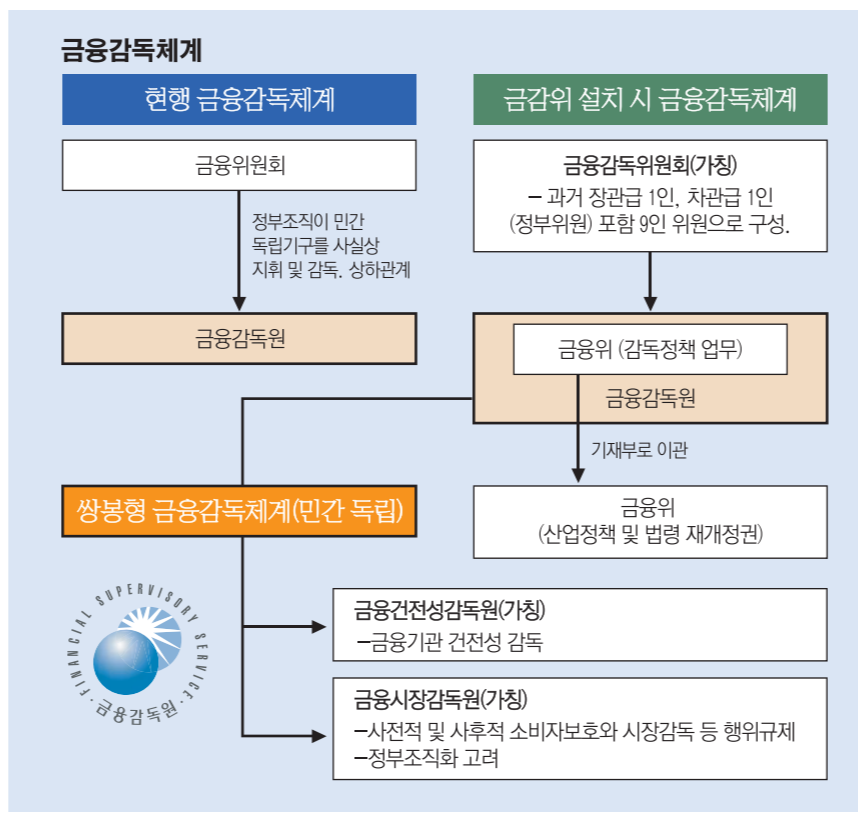
8일 국회 정부위원회와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는 소비자보호국과 금융혁신관(정책관)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중소서민금융국 일부 업무를 금융서비스국으로 이관해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토를 거쳐 오는 6~7월께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조직개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고됐으나, 공교롭게 윤 원장 취임 전후로 1년 만에 갑자기 밀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대신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하고 향후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 부분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사실상 금융위를 '해체'하는 작업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취임 직후 '조직혁신기획단(TF)'을 가동했지만 실질적인 개편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산업정책과 금융정책·감독 부분 분리는 이번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편안을 통과시킨 후 논의할 내용으로 남겨뒀다. 그러나 개편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지방선거 이후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바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금융위의 조직개편이 '대수술'을 막기 위한 사전 자구노력으로 일하는 이유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해 금융위 외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금융산업정책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2013년 고등원성군관대 교수,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당시 명지대 교수), 전성인 흥익대 교수 등과 함께 쓴 '금융감독체계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논문에서도 현행 금융위의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기구는 이원화하는 일명 '쌍봉형' 체계를 채택하기도 했다.

쌍봉형 체계는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건전성감독원(가칭)과 소비자보호와 시장감독을 포함하는 행위 규제를 맡는 금융시장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양 기관 모두 독립성 확보를 위해 공적 민간기구로 하



되 금융시장감독원은 정부조직화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금융위-금감원 체계에서 금융위가 예산권으로 독립기구인 금감원을 사실상 지휘하는 형태를 보이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쌍봉형 외에는 금융감독기구 출범 초기의 금융감독위원회를 재설치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이러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윤 원장이 공식적으로 국회의 법안 발의나 정부의 입법에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견제하고 자문하는 역할은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다운 기자 gamja@

은행 'IB'분야 선박서 항공기로 에미레이트항공 1800억 원 클럽딜

당국 대출 규제로 새 수익원 찾아
11년 만기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항공기금융 年 7%씩 성장 기대

6개 시중은행이 에미레이트항공 A380 항공기 신조를 위한 클럽딜에 1억7075만 달러(약 1800억 원) 규모로 참여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두 번째 은행간 공동 클럽딜을 진행한 것이다. 은행 IB(투자은행)분야에서는 선박금융 침체로 항공기금융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당국의 대출 규제 순이자마진(NIM) 확대가 어려워지자 기업투자금융(CIB) 부문 강화로 새 수익원 찾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8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한·KEB하나·우리·NH농협·산업·부산은행 등 시중은행 6곳은 에미레이트항공 A380 항공기 신조를 위한 클럽딜에 1억7075만 달러 규모로 참여했다. 이번 딜은 국내 금융기관이 에미레이트항공과 최초로 참여한 금융리스 구조의 항공기금융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불황으로 선박금융 투자는 줄어들었다"며 "반면 2020년까지 7%씩 성장 가능한 항공기금융으로 자금이 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 5곳은 에미레이트항공 A380 항공기 신조를 위해 2억1600만 달러(약 2356억 원) 규모의 최초 클럽딜을 진행했다. 이번 딜은 운용리스가 아닌 금융리스 구조로 진행돼 에미레이트항공이 만기 시점에 매입 의무를 진

다. 에미레이트항공이 이번에는 소유 목적으로 항공기금융을 진행한 것이다.

이번 클럽딜은 6개 은행이 공동 간사를 맡았다. △산은은행 4500만 달러 △KEB하나은행 3575만 달러 △우리은행 2700만 달러 △신한은행 2700만 달러 △NH농협은행 1800만 달러 △부산은행 1800만 달러다. 선순위 대출 조건은 약 11년 만기로, 각 은행들은 원리금 분할상환으로 대출금을 회수하게 된다.

은행권 항공기 금융 시장은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주도해 나가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2015년 항공기금융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9월까지 14건에 참여했다. 이후 올해 3월까지 6개월간 4건의 투자가 추가로 이뤄졌다. 대출잔액도 2억7000만 달러에서 약 4억 달러로 큰 폭 증가했다.

KEB하나은행은 올해 항공기금융 투자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2013년 1건, 2016년 1건, 2017년 6건, 2018년 2건 등 3월 기준으로 6억3100만 달러의 투자를 완료했다.

이 같은 추세는 그동안 증권사 IB 중심으로 진행되던 항공기금융 시장에 은행권이 주요 투자자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은행은 증권사와 달리 항공기금융에서 안전한 선순위 대출에 참여하기 때문에 담보물의 안정성만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IB투자의 단위가 미국 달러인데 증권사와 달리 은행은 외화 현금 흐름이 좋아 통화 스왑과 시 원화 승수를 좋게 가져갈 수 있다. 해외 IB 데스크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해외 소송을 할 수 있는 점도 은행의 강점이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정치권·勞組, 다시 불붙는 '노동이사제'

與野, 민간금융사 도입 법안 준비
노조 "개혁적 성향... 취임 환영"에
금융위는 근로자추천이사제 반대

금융권이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 취임과 함께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뜨거운 이슈였던 '노동이사제'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야는 민간금융사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상법 개정안은 사내이사 1명을 노동조합 총회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5년 이상 노조 임원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

신임 금감원장, 정치권, 금융당국 노동이사제 입장

구분	내용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근로자대표를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는 '상법'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액주주·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혁안을 준비
금융행정인사혁신위 권고안	"낙하산 방식,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검토를 권고"
최종구 금융위원장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이뤄진 뒤에야,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

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엔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액주주·노동자 추천 이사제 도입 등에 관한 제도개선이 담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혁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2일 금융노조,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금

공원의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윤 신임 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자력으로 이날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혁신위는 금융공공기관에는 노동이사제, 시중은행 등 민간기업에는 근로자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노

동이사제가 노동자 대표가 직접 경영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방식이라면, 근로자추천이사제는 노동자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금융노조는 10일 열리는 노사 대표단 산별중앙교섭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강력 주장할 예정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윤석헌 신임 원장이 노동이사제를 찬성하는 등 개혁적인 성향이라는 점에서 취임을 환영한다"며 "다만 관료들의 높은 장벽에 추후 개혁 의지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치권과 신임 금감원장, 노조가 노동이사제 도입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금융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는 혁신위 최종 권고안이 발표된 하루 만에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에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박규준 기자 abc84@

은행聯 "사외이사 외부평가, 입법 추진 반대"

은행연합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 제시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사외이사 선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원보상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심의 의무화 등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일부 조항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원의 타위원회 겸직 금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사외이사를 외부에서 평가하도록 하면 이사회 참석률과 같은 단편적 요소만 보게 돼 평가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보상계획을 주주에서 심의하게 되면 "경영진이 주주 의사에 편승해 단기적인 실적에 치

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의 이사회 내 타위원회 겸직 제한에 대해서는 "감사가 리스크관리위원을 맡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다른 위원회까지 겸직을 금지하는 것은 겸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위원회 성격에 따라 겸직 여부를 달리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연합회는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 제도 강화 등 다른 안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는 지난해 말 문제가 됐던 금융지주사 회장들의 '셀프연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됐다.

안철우 기자 acw@

www.douzone.com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 재무회계관리 건설회계관리 인사급여관리 일용노동관리
- 구매관리 재고관리 판매(영업)관리 생산원가관리
- 외주관리 세무조정 전자세금계산서 금융CMS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자동수집: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분개: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자동입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자동검증: 회계·세무신고 누락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업등기 일괄서비스, 4대보험 신고 일괄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운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DOUZONE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中 '반도체 굴기' 속도... 韓 독주 위협

대만과 산업연맹 구축 이어 51兆 규모 반도체 펀드 추가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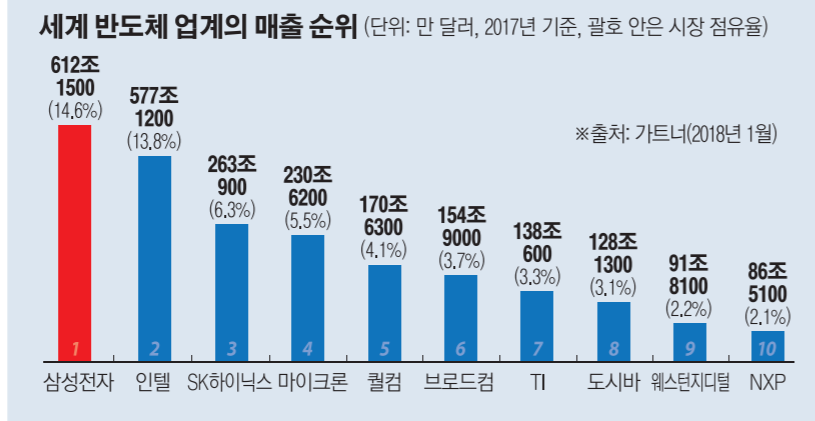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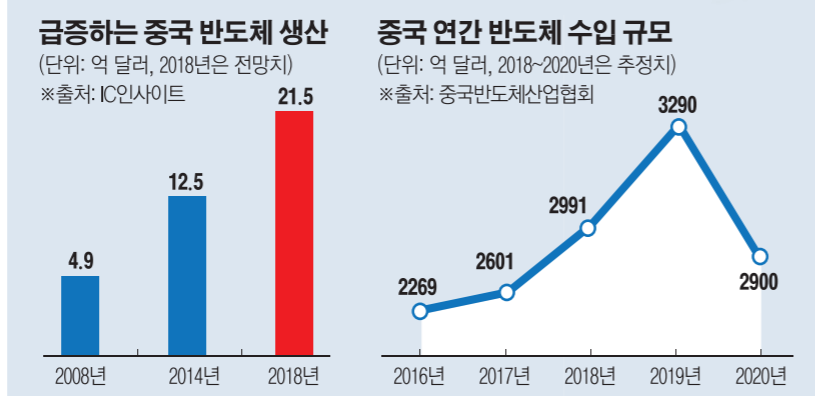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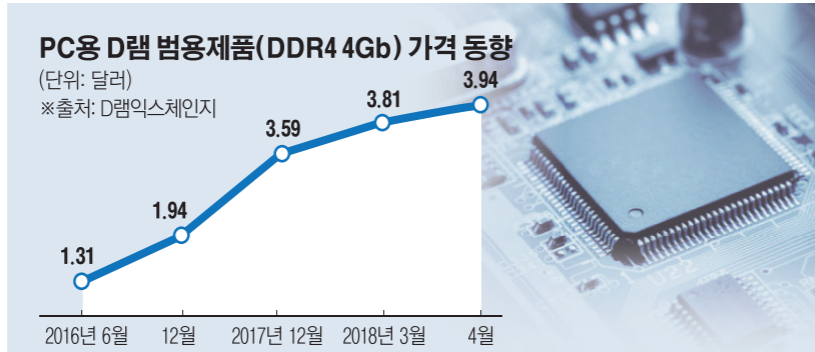
2000년부터 지급자극 전폭지원
2025년까지 지급률 75% 목표
D램·낸드 값 꾸준히 상승곡선
中 양산 본격화하면 하락 불보듯
국내업체 "해의개척 지속 추진"

"전례가 없는 기회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 실현에 공헌해야 한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 후 처음으로 자국 반도체 기업인 창장메모리(YTMC) 자회사인 우한신신(XMC)를 방문해 한 말이다. 대만 업체들과의 산업 연맹 구축에 이어 반도체 기술 독립을 위해 3000억 위안(약 51조 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는 등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중국 정부가 2014년 1390억위안(약 23조5000억 원) 규모인 1차 펀드보다 두 배 이상 큰 신규 반도체 투자 펀드를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는 연간 2000억달러가 넘는 반도체 수입액을 대폭 줄이고, 2025년까지 반도체 지급률 75%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앞서 이달 초에는 창장메모리가 삼성 등 한국 업체들을 대체하는 것과 애플의 메모리 공급체인 진입을 목표로 대만의 파이슨, 시핀, 칩모스 등의 업체들과 산업 연맹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창장메모리는 중국 톱 반도체 기업으로 중국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중국 국가반도체기금과 후베이(湖北)반도체기금 등이 투자한 곳이다. 올 10월 중국 메모리 반



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32단 3D 낸드플래시 양산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지급자극을 목표로 2000년부터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시장이지만 지급률은 2016년 기준 13.5%에 불과하다. 2017년 반도체 업계 매출 순위에는 단 한곳도 톱 10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2025년까지 반도체 지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반도체 산업을 키워오고 있다.

중국이 올 초부터 반도체 굴기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국내 업체들은 상당한 부담과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의 낸드플래시 생산 예정 품목은 32단으로, 64단과 78단 수준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과의 격차 심화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업계는 중국의 양산 자체를 위협으로 느끼고 있

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메모리 생산 경험이 있는 대만 업체들과의 산업연맹 구축 등은 국내 업체들에는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다"며 "32단 수준이면 약 2년 정도 국내 업체들보다 수준이 뒤쳐졌다고 볼 수 있지만 중국이 양산하게 되면 그 시장을 중국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력 격차만으로는 안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 D램과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꾸준히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 2분기 PC용 D램 가격의 협상 결과를 분석한 결과 전분기 대비 평균 3% 가량 인상했으며, 낸드플래시 가격도 D램보다는 폭이 크지 않지만 2분기 들어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추세라면 호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연말까지 국내 업체들의 호실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 양산을 본격 시작하면 평균판매가격(ASP)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창장메모리가 올 10월 양산 예정인데 가운데 PC용 D램을 생산할 것으로 알려진 이노트론, 컨슈머 D램을 생산할 계획인 푸젠진화반도체(JHCC) 등도 올 하반기를 목표로 양산 개시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 업체들은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생산 캐파의 확충 등으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전체 시설투자에 약 84%인 7조 2000억 원을 반도체 부문에 투자했으며, SK하이닉스는 최근 500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조립라인을 증설하기로 했다.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차별화된 기술력과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며 "생산성 싸움에서도 지지 않기로 생산 혁신과 캐파 확장 등을 지속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60조 매출' 이끌 포스코 새 회장 누가 될까 '北사업 책임자'로 구자영 부상

(SK이노베이션 전 부회장)

구자영 전 SK 이노베이션 부회장이 포스코의 차기 회장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사임한 이후 차기 회장으로 하마평에 올랐던 그가 다시 포스코의 새 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구 전 부회장은 1988년 포스코에 입사한 뒤 5년 뒤 퇴사한 '포스코맨' 출신이지만, 현재는 회장 후보군에서는 외부인물에 속한다.



왼쪽부터 구자영 SK이노베이션 전 부회장, 장인화 포스코 사장.

구 전 부회장이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로 떠오르는 이유는 정부의 대북 사업과 맞닿아 있다. 4·27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경제협력(경협)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포스코가 북한의 사 회간접투자(SOC) 사업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번 차기 포스코 회장의 역할은 정부와의 교감이 중요해졌다는 이야기다. 권오준 회장이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퇴를 선언했을 때 청와대 압력설이 불거진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남북경협 분위기 고조로 정부와 교감 중요
최태원 SK회장과 의 인연도 주목받는 이유

장인화 사장도 하마평... 이달 윤곽 나올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의 인연도 그가 차기 포스코 회장으로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구 전 부회장은 포스코에서 퇴사한 뒤 최 회장이 발탁해 승승장구했다. 최 회장이 그를 SK 이노베이션의 부회장까지 승진시키면서, 구 전 부회장은 재계의 거물로 거듭났기 때문이다.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지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온 최 회장이 구 전 부회장을 천거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한, 구 전 부회장은 서울대 금속공학

과 출신인 점,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 이노베이션에서 일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포스코는 전통적으로 회장이 서울대 금속공학과 출신 기술자들을 선호해 온 데다, 신성장동력으로 배터리 소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 전 부회장은 포스코의 본연 사업인 철강과 신사업인 신소재 사업을 두루 경험해 봤다는 의미다.

구 전 부회장 이외도 내부 인사로 장인화 회장사업부 2부부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포스코는 1, 2차 CEO 승계카운슬 회의를 지난달 27일 마쳤다. 이르면 다음주 3차 회의의 진행을 거칠 예정이다. 경협을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달 중으로 새 회장에 대한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넥슨이 17일 공개할 예정인 피파온라인 시리즈의 후속작 '피파온라인4(왼쪽)'와 넷마블이 이달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251개국 양대마켓에 동시 출시 예정인 전략 MMORPG '아이언스톤'.

금타 '방산부문' 분리매각 추진

방산업체 지정 취소 요청 非방산부문만 더블스타에

금호타이어가 비(非)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2일 방산업체 지정취소를 요청했다. 채권단은 지정취소 후 방산 부문을 더블스타가 아닌 국내 업체에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전투기용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는 방산업체로 지정돼 있다. 방위사업법 제35조는 방산업체를 매각할 경우 산산업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은 연간 약 16억 원 규모로 사업 규모가 크지 않다. 다만 이 사업이 외국 업체에 넘어가면 타이어 구매 비용이 증가하고 안정적인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면 매각 승인 심의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채권단은 금호타이어의 방산업체 지정을 취소한 뒤 비방산과 방산을 분리해 방산 부문만 더블스타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투기용 타이어 사업을 분리하면 산업부로부터 매각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채권단과 더블스타가 원하는 대로 매각 절차를 더 빨리 끝낼 수 있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기업	투자 내용
LG화학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통해 2022년까지 NCMA(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혼합된 2차전지) 개발
삼성SDI	2018년 1분기 실적 발표 통해 "2020년(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지는 시점 대비할 것"이라며 투자 가능성 시사
SK이노베이션	SK배터리차이닝홀딩스 → 블루드래곤에너지로 사명 개명 후 864억 원 출자



배터리 3社 "中 전기차시장 다시 한번"

SK이노 등 재공략 투자 늘려 2020년 보조금 폐지에 대비 시장선점 위한 기술경쟁 박차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이 중국 전기차(EV) 시장 겨냥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 8일 글로벌 배터리 전기차 시장조사사업체인 SNER리서치가 따르면 2020년 글로벌 EV 시장규모는 약 428억 달러(약 46조 95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83%의 성장세를 보인 중국이 2020년 EV 200만 대 판매 목표를 설정하면서 EV 배터리 시장이 더욱 성장할 것이라 업계의 분석이 나온다. SNER리서치는 보

고서를 통해 "현재 EV 판매 시장의 60%가 중국이 차지했으며 이어서 유럽이 21%, 미국이 13%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발맞춰 국내 업체들의 투자가 감행되고 있다. 최근 SK이노베이션은 당사의 중국 전기차 배터리 사업 투자를 담당할 법인 SK배터리 차이나 홀딩스를 '블루드래곤 에너지'로 사명 개명 후 864억 원을 출자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계획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LG화학 또한 2394억 원을 투자해 중국의 화유코발트와 합작사 설립하면서 중국시장 공략에 나선 바 있다. 삼성SDI는 최근 실시된 올해 1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2020년 보조금 없어지는 시

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 선점을 위한 각사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LG화학 최근 실적발표서 'NCMA 배터리 양산' 목표 공개하면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CMA 배터리는 기존 삼원계 배터리인 NCM(니켈·코발트·망간)으로 이뤄진 2차 전지에 알루미늄을 추가하여 기존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높인 기술이다. LG화학은 이외에도 현재 EV용으로 양산 중인 NCM622를 넘어선 NCM712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NCA에 집중하는 삼성SDI와 NCM811 상용화를 앞둔 SK이노베이션, NCMA 개발에 나선 LG화학 등의 기술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훈 기자 jungh216@

비수기는 없다... 5월 '대작 게임' 러시

넥슨 17일 '피파온라인4' 서비스 넷마블 '아이언스톤' 251개국 동시 블루홀 '배그 모바일' 등 줄이어 하반기 흥행몰이 벌써부터 정조준 내달 러 월드컵 개막 특수효과도

국내 게임업체들이 5월 대형 신작들의 출시를 준비하며 일찌감치 하반기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PC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을 가리지 않고 출격을 대기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관심도 높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과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블루홀, 위메이드 등은 이달 신작 출시를 앞두고 마비지 준비에 한창이다.

우선 넥슨은 17일부터 피파온라인 시리즈의 후속작 '피파온라인4' 공개서비스를 시작한다. 피파온라인4는 최신 물리엔진에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한 것이 특징이다. 피파온라인 시리즈 최초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AI가 자동으로 수비하는 기능을 지원한다. 피파온라인4는 3일부터 팀의 이름을 결정짓는 '구단주명 선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피파온라인4가 출시되면 전작인 '피파온라인3'는 동시에 서비스를 진행하다 오는 8월 종료할 예정이다. 더욱이 '피파온라인4'는 최근 사전예약자 300만명을 돌파해 오는 6월 개막하는 러시아 월드컵 특수를 누릴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넷마블은 전략 MMORPG(다중접속역

할수행게임) '아이언스톤'을 이달 중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251개국 양대마켓에 동시 출시한다. 아이언스톤은 실시간 전략 게임에 RPG요소, 오픈월드 시스템을 더한 전략 MMORPG다. 특히 360도 풀 3D 그래픽을 지원하고 증강현실(AR)과 인공지능을 탑재해 게임성도 높였다. 특히 아이언스톤은 넷마블이 자체 IP(지적재산권)를 가진 게임을 세계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는 야심찬 계획 아래 3년의 개발 기간을 들여 만든 게임인 만큼,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명실상부한 넷마블의 첫 도전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블루홀은 '플레이어연노운스 배틀그라운드'의 모바일 버전인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이달 중 선보인다.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현재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국내 PC방 점유율 38.62%로 25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지난달 25일부터 사전예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참여자는 200만 명에 달한다.

이외에도 스마일게이트는 판타지 MMORPG '로스트아크'의 최종 테스트를 오는 23일부터 진행하며 위메이드는 자회사 조이맥스를 통해 윈드러너의 후속작 '윈드러너2'를 공개한다. 업계에서는 5월에 대작 출시가 줄을 잇는 것을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수기인 여름방학을 앞두고 7월 직전에 출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의 경우 내달 러시아월드컵 특수 등을 감안해 예년보다 빨리 게임을 출시해 시장을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준 기자 tatio@

때 이른 더위에 분주해진 가전업체

이마트, 10일부터 '얼리버드 할인' 행사
전자랜드는 '기절초풍 에어컨 세일' 등
이달부터 여름가전 이벤트 펼쳐



전자랜드는 이달 31일까지 '기절초풍 에어컨 세일'을 진행한다. 사진제공 전자랜드

가전 유통업체에 항공권 예매에서나 볼 법한 '얼리버드' 바람이 불고 있다. 때 이른 더위를 겨냥해 여름 가전 행사에 나서는 것. 올해 역시 5월 평균기온이 평년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름 가전 판매 시점을 앞당기는 곳들이 늘고 있다.

8일 유통업체에 따르면 이마트는 올해 이른 더위를 대비해 선풍기 판매를 예년보다 2주 앞당긴 3월 말부터 시작했다. 역대 가장 빠른 시점이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선풍기 구매 고객이 지난해보다 83%나 늘었고 매출도 80%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이른 더위'를 대비해 여름에 앞서 성수기 수준의 대규모 여름 가전 행사를 기획한 것이 주효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특히 지난해 5월은 전국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46년 만에 가장 무더운 5월로 기록되는 동시에 2014년 이래 4년 연속 5월 평균기온 최고치를 경신했다. 즉, 여름이 시작되는 시점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올해 역시 이른 더위가 전망되면서 가전 유통업체가 급격히 늘어나는 고객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

이마트는 10일부터 전국 이마트와 이마트몰에서 최신형 에어컨과 '가성비'가 우수한 자체 브랜드 선풍기를 대표상품으로 선정, 여름 준비의 신호탄격으로 '얼리버드 여름가전' 행사를 펼친다. 행사에는 12만여 대의 자체 브랜드 선풍기를 확보해 한여름 성수

기 규모로 준비했다.

아울러 여름 필수 가전이 된 에어컨은 카드 프로모션과 이마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할인 쿠폰 증정 행사를 진행한다. 23일까지 삼성·LG에어컨을 삼성·KB·신한·NH·우리카드로 구매할 경우 구매 금액별로 최대 30만 원의 추가 예누리 혜택을 제공하고 16일까지는 이마트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최대 10만 원 할인 혜택을 담은 쿠폰을 증정한다.

전자랜드는 31일까지 무이자, 포인트 리필, 캐시백 등 혜택을 제공하는 '기절초풍 에어컨 세일'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제휴카드로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에어컨 일부 행사제품을 결제하는 고객에게 3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비싸카드로 6평형 벽걸이 에어컨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신한카드 결제 고객에게 6평형 벽걸이 에어컨 구매 시 포인트를 사용하면 사용 포인트의 50%를 되돌려 주고, 7평형 이상 구매 시에는 20%를 되돌려 준다. 조남호 기자 spdran@

“부쩍 늙은 아با에게 젊음 선물하세요”

5060남성들 '실버그루밍' 열풍에 어버이날 선물 풍속 달라져
최근 한 달간 G9 흑채 판매량 92%, 화이트닝크림 280% 급증



설화수 맨 본운 에센스(위)와 탑센스 흑채. 사진제공 G9

직장 여성 신모(29) 씨는 어버이날 선물로 주름 개선 크림과 슬이 부족한 옆머리나 이마를 메워주는 헤어 색도를 구입했다. 최근 부쩍 거울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난 아버지를 보고 준비한 선물이다. 신 씨는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좋았다. ‘꽃중년’의 위력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실버 그루밍’ 열풍에 어버이날 선물 풍속도가 바뀌고 있다. 나를 가꾸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는 5060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외모 관리용 제품들이 어버이날 선물로 각광받고 있는 것이다. 부모 입장에서선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 가능해 실용적이고, 자녀 입장에서라도 비교적 색다른 선물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

이 같은 추세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로 여실히 확인된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쿠팡이전 종합 쇼핑몰 G9에서 흑채 판매는 최근 한 달(4월 4일-5월 3일)간 전년 대비 2배 가까이(92%) 신장했다. 화장품 관련 판매도 늘어 화이트닝 크림은 무려 3배 가까이(280%), 아이크림은 25% 각각 늘었다. 먹는 화장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히알루론산과 콜라겐 영양제 판매도 99% 증가했다. 이외에도 흡케어 제품으로 화제를 모은 LED 마스크 판매가 240%, 갈바닉 얼굴 마사지기 판매가 205% 각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안’의 필수조건으로 매끈한 피부가 꼽히는 만큼 주름 관련 제품 수요도 높다. 최근엔 중년 남성을 겨냥한 전용 기능성 화장품도 출시되고 있어 선물용으로 소비자 호응이 높다.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맨 본운에센스가 대표적이다. 인삼 추출물이 함유된 남성 전용 안티 에이징 에센스로 피부 재생력을 강화해 탄력과 주름, 칙칙한 피부톤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LG생활건강 한방 화장품 수려한의 ‘효

비담 정유 올인원’도 남성 피부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안티 에이징 화장품으로 풍부한 보습기능과 주름 관리 기능이 포함돼 인기다.

콜라겐 식품, 페이스 롤러 등을 선물하는 경우도 늘었다. 중근단 아쿠아 콜라겐은 레몬 농축액이 들어 있어 섭취가 쉬운 콜라겐 영양제다. 피부 탄력을 더해 주는 것은 물론 연골 건강에도 효과가 있어 중년의 콜라겐 부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페이스 롤러 등의 마사지 제품도 전문 관리실 방문 없이 피부를 관리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남성용 마사지 롤러인 ‘김파 액티브 롤러’는 얼굴 라인을 따라 문질러주면 주름과 처진 피부 탄력에 효과를 볼 수 있다.

탈모 관련 제품들도 단연 눈에 띈다. 에스티더어의 ‘U라인 미라클 색도우’는 이마나 비어 있는 옆머리 부분에 가볍게 두드려주면 매끄럽고 풍성한 헤어라인을 연출해주는 제품이다.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 세련미를 중시하는 실버 그루밍족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다. 뛰어난 발색력과 보습성분으로 흰머리를 감쪽같이 커버해주는 ‘샬롱드 프로 헤어 마스크라’도 있었다. 미세한 컬러 표현이 가능한 이지형 브러시가 있어 사용이 용이하다.

이외에 몸매 관리를 위한 제품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슬림로이스 다이어트 한방환’은 20여 가지 한방 재료를 사용해 중년 남성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다. ‘바디킹 남성 보정속삭’은 불꽃 나온 군살과 굵은 체형을 잡아줘 실버 그루밍족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G9 관계자는 “중장년층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외모에 투자하는 이들이 늘면서 어버이날 선물도 변화하고 있다”며 “자녀들도 부모가 더 젊고 건강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특별한 선물을 할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mj@

KANU SPRING

카누가 있어 봄이 한 번 더 향기로워 집니다



한정판

세상에서 가장 작은 커피



이마트는 15일간 숙성시킨 돈육 ‘햇에이징 삼겹살’을 선보였다(왼쪽). 코카콜라 프리미엄 캔커피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는 720시간 저장고에서 숙성한 커피 열매를 사용해 깊고 풍부한 커피 향을 자랑한다.

‘숙성푸드’에 빠진 한국

삼겹살·커피·소주 등 숙성제품 잇달아
종 풍부하고 맛 깊어 소비자 입맛에 딱

한국인의 ‘소울 푸드’ 김치를 비롯해 대부분의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은 ‘숙성’이라는 과정을 거친다. 일반적으로 숙성을 거친 식재료는 향이 풍부해지고 맛이 깊어진다. 이에 유통·식품업계에서는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3년 이상 숙성을 통해 만족도를 높은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서는 작년에 인기를 끈 숙성 소고기에 이어 올해 숙성 삼겹살까지 출시하며 ‘숙성육’ 열풍을 이어가고 있다. 이마트는 2016년 말부터 숙성 한우 등심을 선보였으며 올해부터는 숙성 돈육인 ‘햇에이징 삼겹살’을 판매한다. 이 제품은 고기를 15일간 숙성시켜 육즙이 풍부하고 일반 삼겹살보다 부드럽고 고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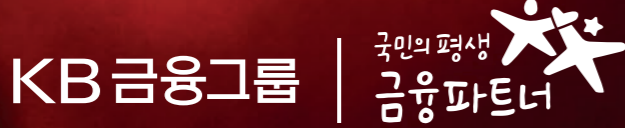
숙성육 판매 대열에 편입되기도 했다. CU는 최근 소포장 숙성 한우·한돈 자판기인 ‘사물인터넷(IoT) 스마트 자판기’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판기는 숙성 냉장고와 결합한 냉장육 무인 판매 플랫폼으로 스크린 터치 방식으로 고기를 고르면 미리 손질해 포장해놓은 제

품이 나온다. 소비자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냉장고의 온도, 습도, 유통기한 등 품질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점검할 수 있다.

커피업계도 최근 다양한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해 숙성 커피를 내놓고 있다. 코카콜라의 프리미엄 캔커피 ‘조지아 고티카’는 최근 720시간(30일) 숙성한 빈티지 커피 열매의 깊고 풍부한 맛과 향을 살린 신제품 ‘조지아 고티카 빈티지’ 3종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720시간 저장고에서 숙성한 커피 열매를 사용해 숙성 커피 특유의 깊고 풍부한 커피 향과 맛을 캔 커피에 담았다. 패키지에는 우든 박스 콘셉트를 적용해 숙성 커피 열매의 그윽한 향이 느껴지는 빈티지한 느낌을 표현했다.

숙성 제품 판매 대열에는 주류업계도 빠지지 않는다. 하이트진로는 참나무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한 프리미엄 소주 ‘참나무통 맑은이슬’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주정을 베이스로 하는 소주에 참나무통에서 3년 이상 숙성한 쌀 발효 증류원액을 블렌딩해 목통의 은은한 향과 부드러운 끝맛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알코올 도수는 16도로 차별화해 부담 없이 즐기기에 좋고, 제품 패키지는 참나무통 이미지를 삽입해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병목에도 태그를 추가해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조남호 기자 spdran@



KB증권의 우대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드세요

KB증권 고객이면, 단 하루만 맡겨도
연 2.5%(세전) 우대 수익률!

비대면 CMA 연 2.5%(세전) 우대 수익률 이벤트

기간 : 2018. 4. 13(금) ~ 7. 12(목)

대상	CMA 계좌 최초 개설 고객	CMA 계좌 기보유 고객
혜택	연 2.5% 우대 수익률 (세전/ RP형, 최대 300만원, 6개월)	연 2.5% 우대 수익률 (세전/ RP형, 최대 500만원, 월 단위 조건 충족시 지속 적용)
적용기간	개설 후 익월 두번째 영업일~익익월 첫번째 영업일	조건 충족 후 익월 두번째 영업일~익익월 첫번째 영업일
조건	비대면 계좌개설 App(Start able)을 통한 CMA계좌개설	CMA 추가금리 조건 충족시(프로모션 상세페이지 참조)

- ※ 기 시행중인 최고 3.0% 우대조건 충족시 해당 구간으로 자동변경
- ※ 비대면 개설 가능 대상고객 : 만19세 이상 국내거주 내국인 개인만 가능 (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법인, 임의단체는 이용 불가)
- ※ 유의사항
 - 이벤트 혜택 종료 후에는 연 1.2%(세전)의 수익률이 적용되며, 혜택 종료에 대한 개별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CMA 금리 안내 참조)
 - 본 이벤트는 당사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습니다.
 - 대상고객은 당사(구.현대증권, 구.KB투자증권 포함)의 계좌, 잔고, 거래내역을 모두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 당사 CMA 최초고객 여부는 상단의 CMA 개설여부 조회하기 화면 또는 당사 고객센터(1588-6611)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 able plus를 통한 개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최초 CMA 개설 고객이 계좌 폐쇄 후 다시 개설하실 경우 이벤트 조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 비대면 CMA 최초 개설 고객 2.5% 우대수익률 혜택 이벤트는 KB증권 비대면계좌개설 App(Start able)을 통한 계좌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KB able plus를 통한 CMA 계좌 개설은 제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사 고객센터 1588-6611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1827호(2018년04월24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 청취 후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MA] *CMA의 입금액은 RP등에 투자됩니다. *RP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대수익률 적용기간종료시에는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유럽 상륙 '토종 바이오시밀러' 빛나는 활약

바이오 쥘인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의 유럽 시장 공략 움직임이 눈부시다.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올해 연달아 유럽 시장에 시밀러를 출시하는 한편 기존 제품들의 마케팅도 강화하며 '점유율 굳히기'에 들어갈 예정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최근 유방암·위암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유럽 공략에 가세했다고 밝혔다. 허주마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시밀러 '렘시마'와 혈액암 치료용 시밀러 '트룩시마'에 이어 유럽에 출시되는 세 번째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다.

올해 2월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얻은 허주마는 이달 3일부터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판매가 본격화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허주마는 2분기 내 영국에 이어 독일,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제품 출시를 완료하며 한발 빨리 출시된 온트루잔트와 선두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출시에 앞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직접 유럽을 순회하며 허주마 영업 일선에 나서고 있다.

앞서 출시된 렘시마와 트룩시마의 성장세도 무섭다. 렘시마는 지난해 4분기 유럽에서 52%의 점유율을 달성해 바이오시밀러로는 처음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이 차지한 시장 점유율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유럽 14개국에 출시한 트룩시마는 지난해 4월 유럽에서 처음 맞을 내린 영국에서 4분기 기준 시장점유율 43%로 절반에 근접했고, 유럽 평균 18%의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셀트리온				셀트리온·삼성바이오에피스 유럽시장 진출 현황				삼성바이오에피스	
시밀러	오리지널	유럽 출시 시점	2017년 연매출	현재 출시된 국가	시밀러	오리지널	유럽 출시 시점	유럽지역 2018년 1분기 매출	전년 동기 대비
렘시마	레미케이드	2014년 3월	4000억 원 (점유율 52%)	유럽 대부분	베네팔리	엔브렐	2016년 2월	1억 2100만 달러 (한화 1300억 원)	93% ↑
트룩시마	리독산	2017년 4월	4000억 원 (점유율 18%)	현재 14개국	플릭사비	레미케이드	2016년 9월	660만 달러 (70억 원)	84.5% ↑
허주마	허셉틴	2018년 5월	없음	영국 먼저, 2분기 내 주요 5개국	온트루잔트	허셉틴	2018년 3월	없음	1000% ↑
					임팔디	휴미라	2018년 10월	없음	없음

셀트리온

'렘시마' 52%·'트룩시마' 18% 점유 유방암·위암 치료용 '허주마' 출시 서정진 회장 유럽 돌며 영업 일선 나서

로 전해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연내 유럽 전역으로 트룩시마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셀트리온헬스케어 관계자는 "유럽에서 허주마도 렘시마나 트룩시마와 비슷한 성장 트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도 유럽에서 선전 중이다. 최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유럽 파트너사 바이오젠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매출은 1억2700만 달러(약 1400억 원)로 1억 달러 고지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2배 가까이 성장한 성과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베네팔리' 1분기 매출 1300억 원·85% ↑ '휴미라' 특허 분쟁 합의 '임팔디' 출시 앞두고 유럽 출시 첫 시밀러로 선두주자 이점 기대

특히 엔브렐 시밀러인 베네팔리는 유럽에서 가장 먼저 출시된 선두주자의 이점을 활용해 1분기 삼성바이오에피스 매출을 견인했다. 1분기 베네팔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5% 늘어난 1억21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이른다.

2016년 3분기에 출시된 레미케이드 시밀러 플릭사비의 올해 1분기 유럽 매출은 660만 달러(70억 원)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도 10배가 늘어났다. 플릭사비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에서 꾸준히 수주를 늘려가면서 작년 4분기보다 57% 성장했다.

3월 영국에서 판매가 시작된 항암항체 치료제

온트루잔트는 셀트리온 허주마보다 한발 앞서 출시된 첫 허셉틴 시밀러로서 유럽 출시 후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30개 국가로 시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휴미라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제약사 애브비와의 오랜 특허 분쟁이 합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세 번째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시밀러 임팔디의 유럽 진출문이 열렸다. 임팔디는 올해 10월부터 유럽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당분간 유럽에 출시되는 첫 휴미라 시밀러로서 선두주자의 이점을 누리게 돼 전망이 밝다. 업계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앞으로 오리지널 특허 만료기 이어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시밀러가 늘어나면서 갈수록 원가 싸움과 마케팅 싸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럽을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이 파스트부터 입지를 선점하고 새로운 시밀러들도 준비 중인 만큼 앞으로는 좋은 소식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건강한 픽템

동아제약 '챔프 노즈 시럽'

찾으면 없는 어린이 감기약 주머니에 '썩' 한 포면 '뚝'

일교차가 크고 변덕스런 5월 날씨에는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일수록 감기에 걸리기 쉽다. 성인용 감기약은 편의점에서 손쉽게 살 수 있지만, 어린이 감기약은 필요할 때 찾으면 없을 때가 있어 미리 가정 상비약으로 구매해 두는 게 상책이다.

동아제약이 어린이 감기약 '챔프 노즈 시럽'을 출시했다.

새롭게 선보인 챔프 노즈 시럽은 슈도 에페드린염산염,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 성분으로 구성되어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 등을 완화한다.

챔프 노즈는 5ml씩 1회용 스틱 파우치 형태로 소량 포장되어 있어 복용이 편리



1회용 스틱 파우치로 소량 포장 색소·보존제 넣지 않아 더 안심

하고 휴대가 간편하다. 나이가 만 5세이고 체중이 20kg인 아이라면 1회 복용 시 별도의 투약 도구(계량컵, 스푼) 없이 5ml 한 포를 먹이면 된다.

어린이 감기약인 만큼 색소와 보존제를 넣지 않았으며 의약품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 안전 포장을 적용했다. 보호자가 직접 가위 등을 이용해 개봉해야만 복용할 수 있다. 만 2세부터 복용 가능하며,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2012년에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인 어린이 해열제 '챔프 시럽'을 처음 출시했다.

2016년에는 종전 일반적인 사각형 파우치 모양이었던 챔프 시럽을 지금과 같은 길쭉한 파우치 형태로 재출시한 데 이어 이부프로펜 성분인 '챔프 이부펜 시럽'을 새롭게 선보이며 라인업을 강화했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SK케미칼, 혈액제제 이어 '백신' 전문회사 신설

제약업계는 지금

제약·바이오 부문 분사로 전문성 강화 글로벌 파트너링·SI 등 통해 IPO 계획 내달 주총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 예정

지난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SK케미칼이 사업구조 개편에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선택과 집중' 분야인 혈액제제 사업의 분사에 이어 '백신' 부문까지 독립시키면서 '전문성·경쟁력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 모습이다.

SK케미칼은 2일 이사회를 열고 기존 VAX사업

부문(백신사업)을 분할해 7월 가정 'SK바이오사이언스'라는 백신 전문회사를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분사는 SK케미칼은 존속하면서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설법인인 SK케미칼의 100% 자회사가 되는 셈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백신 의약품 등의 연구, 개발, 제조, 가공, 상업화, 유통, 수출입 및 판매사업 등을 맡게 되며 다음 달 15일 주주총회를 거쳐 7월 1일자로 공식 출범한다.

SK케미칼이 사업 부문 분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15년 3월 혈액제제 부문을 분사해 SK플라즈마를 설립한 데 이어 SK케미칼은 또 한 번 주력 사업을 독립시켰다. 향후 전문·일반의약품 부문까지 분사하면 SK케미칼 아래 3개의 제약 자회사들이 '삼각 편대'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SK케미칼이 제약·바이오 부문 분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각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이다. SK케미칼 측은 "이번 분사로 백신 사업 부문에서 창출되는 수익이 해당 사업에 재투자되면 집중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성장의 기틀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적 투자 유치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도 깔려 있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SK케미칼은 자체 기술력으로 프리미엄 백신 개발에 성공해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글로벌 시장 판매 채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장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사업부 분사를 통해 효율적 경영으로 선진국 시장 진출을 도모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성

장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신재훈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도 "SK케미칼의 백신사업 부문 분사는 전문성 강화와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링, 기업 공개(IPO)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백신사업 확장 등을 의미한다"며 "향후 전략적 투자자(SI)의 자금 유치 계획 아래 2022~2023년 IPO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세계 최초의 4가 세포배양 독감백신 '스카이셀플루'로 세계 두 번째 대상포진백신인 '스카이조스터'를 개발,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구조를 깨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또 폐렴구균 백신13가 이미 성인용 인허가를 받았고 소아를 대상으로 한 임상 3상에 들어갔다. 이밖에 임상 1/2상을 진행 중인 로타바이러스 백신과 자궁경부암 백신 또한 2019~2020년 출시가 예상돼 향후 매출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수도권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올해 시판 허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전민정 기자 puri21@

www.119medical.co.kr

월화수목금토일 치과

낳아주신 은혜에 비할 순 없지만...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서 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월화수목금토일 치과에 예약했습니다.

비싼 집부터 꺾였다...상위 20%만 하락

(5분위 -0.05%)

서울 아파트 매매가 소폭 하락...1~4분위는 0.1~0.7% ↑
 '富村' 강남3구 상승률 낮고 '안전진단 타격' 양천은 하락

승승장구하던 서울 고가 아파트가 4월 한 달간 주춤하는 양상이다. 다주택자가 여분 주택을 처분하고 핵심 지역에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하는 '뚝뚝한 한 채' 매수세에 찬 물이 끼얹어진 모습이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5분위(상위 20%) 아파트의 4월 평균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05% 하락했지만 나머지 4분위(상위 20~40%), 3분위(상위 40~60%), 2분위(상위 60~80%), 1분위(상위 80~100%)는 각각 0.71%, 0.69%, 0.39%, 0.10% 상승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증가가 적용되기 하면서 '뚝뚝한 한 채' 매수세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오히려 더 가파르게 오르며 정부는 주택 양극화를 심화했다는 지적을 들어야 했다.
 실제 8·2 대책 발표 여파로 주춤했던 지난해 8·9월을 제외하곤 서울 5분위 아파트는 2월까지 가장 높은 상승률 기록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5분위 아파트의 평균매매가격 상승률은 25.3%로 동기 간 서울 전체 상승률인 18.4%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이 주춤하는 양상이 빚어지며 5분위 아파트도 함께 출렁인다는 분석이다.
 '부촌'이 형성돼있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4월 서울 평균 상승률(0.37%)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은 0.20%, 서초는 0.09%, 송파는 0.21%를 기록했다. 목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던 양천구도 0.15% 하락했다. 정부가 재건축 촉진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 강화해 재건축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의 경우 전세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며 매매가격까지 끌어내리는 상황이다.
 반면 서울 도심권에 가까운 지역들은 평

균 상승률을 웃돈다. 같은 달 종로와 중구는 0.78%, 0.72% 올랐다. 지난해 말 시작된 상승장에서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중 가장 늦게 발동이 걸린 마포는 0.82%, 바로 인접한 서대문은 0.70% 상승했다. 동작도 0.82% 오르며 이달 서울 상승률을 견인했다.
 다만 고가 아파트부터 시작된 하락 추세가 서울 전반으로 점차 퍼질 것이라 전망이 이어진다. 강여정 한국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서울 전체적으로 여전히 상승인 것은 상승 선도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나타나는 고가 지역에서 중저가 지역으로의 '계단적 키 맞추기'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며 "일정 기간 균형을 맞춘 후에는 다른 구들도 하락세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산철 기자 camus16@

최영진의 현안진단

平和 분위기에 뜨는 파주 '美軍기지' 평택은 치명타?

남북 정세가 화해 모드로 급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파주와 같은 접경 지역은 벌써부터 땅 투자 바람이 거세다. 오랫동안 안 팔려 애를 먹던 땅도 금세 입자가 나타나는가 하면 팔리고 내놓았던 매물이 회수되는 분위기가.
 이에 따라 극성 투자자들은 계약서 작성도 하기 전에 먼저 매도자에게 계약금부터 입금하는 진풍경이 나타난다. 매도자의 변신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야단이다. 지역 중개업소는 물론 땅 작업에 능숙한 외지 업체들이 뛰어들어 땅값이 치솟는 형국이다. 문산 일대 농지 가격이 3.3㎡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급등했다. 그레도 매물이 없어 못 살 정도다.
 이런 현상은 예견됐던 일이다. 큰 호재가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여기저기서 땅을 사려는 투자자들이 몰려들면 땅값은 자연적으로 오르게 돼 있다. 그동안 파주권은 남북 관련 주요 이슈가 있을 때마다 관련 지역 토지시장이 달아오르는 사람도 있었으니 투기가 얼마나 극성을 부렸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파주권의 부동산의 투자가치는 얼마나 있을까. 현재 가능하기 어렵지만 좋은 위치는 보물단지라 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새로운 산업벨트가 조성될 여지가 많다. 중단됐던 개성공단 가동이 재개되는 것은 당연하고 북한 지역에 또 다른 공단이 만들어질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파주권은 이와 연관이 있는 부차재 공장이나 물류 단지로 적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북한 시장 진출을 위한 수출 단지도 여기저기 만들어질 것이라는 소리다.
 부동산 개발의 관심도가 경복고속도로 축에서 서울-개성 축으로 바뀔 여지도 있다. 게다가 비무장지대를 비롯해 접경 지역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될 경우 상황은 더욱 달라진다.
 물론 이런 내용은 장기적인 사안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고 새로운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다. 리스크도 내재돼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 속성으로 볼 때 그런 것은 나중 문제다. 투자자들은 일단 탐뭏고 본다. 일단 개인투자가 아니라 호재를 활용하는 전문적인 투자 집단 얘기다. 땅을 미리 확보해 놓았다가 비싼 값에 쪼개서 팔든가 공장을 지으려는 기업한테 매각하는 토지 전문 부동산컨설팅업체들의 행태다.

예상하건대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전국의 땅 투기꾼들이 파주로 대거 몰려올지 모른다. 이는 파주 땅값은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소리다.
 투기 바람이 거세지면 정부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같은 규제 방안을 내놓을지도 모른다. 그레도 땅값은 상승 무드를 탈 수밖에 없다. 기대실리다. 필수요자까지 가세하면 상승세는 당연한 현상이다. 문제는 기획부동산 업체에 속아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잡았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파주권은 군사지역 등으로 개발 제한을 받는 곳이 많다. 아무리 남북 화해 무드가 조성된다 해도 군사지역 자체를 해제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파주가 뜨면 상대적으로 평택권은 소외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앞으로 미군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전협정으로 미군 축소 조치가 내려지면 기지가 있는 평성을 비롯한 평택권 부동산시장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공급 과잉으로 별기가 가득한데 미군 축소 소식까지 전해지면 급랭할 게 뻔하다.
 남북 화해 무드로 인해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희비가 엇갈릴 판이다.
 부동산대기자 choibak14@

“시공사 선정되면 조합원에 3000만원씩 주겠다”

롯데건설, 흑석9구역 수주전 무리수?

롯데건설이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수주에 성공할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 원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에서 문제가 됐던 이사회비 7000만 원 지원 공약처럼 롯데건설이 수주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리수를 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해당 공약을 제시한 사업지는 흑석9구역이다. 27일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이 조합의 시공권을 두고 현재 롯데건설과 GS건설, 두 건설사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이 구역의 재개발 사업비는 총 40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건설은 이 사업지의 수주전 경쟁 과정에서 '확정이익 보장제'라는 형태의 공약을 내놓았다. 이 공약은 흑석9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롯데건설의 자체 추산 결과 조합원 1인당 이익이 3억

“확정이익보장...시공품질 약속
 반포주공1 이사비와는 다르다”
 국토부 “법률자문 거치겠지만
 시정조치 피하기는 어려울 것”

원가량 발생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되므로,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시 그 10%에 해당하는 3000만 원가량을 보증금 개념으로 조합원 개개인에게 즉시 선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와 유사하게 시공사 선정시 조합원 개인에게 금전적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사례로 지난해 9월 반포주공1단지에서 벌어졌던 이사회비 지급 논란이 있다. 반포주공1단지 1·2·4지구 수주전 당시 현대건설과 GS건설의 경쟁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이사회비용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7000만 원의 무상 지원을 약속

했다가 국토부의 시정 지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는 이사회비 지급을 두고 극심한 눈치보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롯데건설은 흑석9구역에서 내놓은 '확정이익 보장제'는 반포주공1단지 때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당시 논란은 '이사회비'에서 불거졌고, 국토부가 시정 조치한 건도 이사회비와 이주비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 공약에서 나온 보증금은 이사회비·이주비가 아니다”며 “당시 국토부는 시공과 무관한 사안에 대해 금전을 제공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었는데, '확정이익 보증금' 3000만 원은 시공 품질을 높여 조합원 수익을 높여겠다는 약속이므로 시공과 관련된 자금이라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건설의 해명과 달리 국토부 관계자는 롯데건설의 '확정이익 보장제'가 반포주공1단지에서의 이사회비 논란과 크게



롯데건설 흑석9구역 사업 제안서 중 투시도 일부.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이사회비' 논란 당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법률자문을 거쳐야 바뀔 수 있지만 이런 식의 자금 지원 공약은 처음 보는 형태며, 만일 그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정조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과 관련된 자금 지원이라는 해명에도 “당시 시정조치는 시공 품질에 관한 내용을 조합에 약속하게끔 한 것이기 수익을 보증하기 위한 수천만원의 자금 지원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 논리는 건설사 측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공공기관·군부대·공장 빠진 자리 ‘랜드마크 주거지’ 분양 시장 주목

분당 가스공사·안양 국립종자원 등

도심 속 숨은 요충지의 화려한 변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군부대, 공장 등의 시설이 이전하면서 남은 부지들이 새롭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전 부지는 생활 인프라는 물론 교통 인프라가 풍부한 지역 도심 요충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분양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 서남부 끝자락에 위치해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던 서울 금천구는 옛 도하부대 이전부지가 4400여 가구의 주거복합단지로 개발되면서 서울 서남권의 신축 주거지로 부상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아진 만큼 시세도 오르

면서 이전 부지에 조성된 ‘롯데캐슬 골드파크1차’는 전용면적 84㎡가 2월 기준 7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고층부 분양가인 4억 8000만원에 비해 2억 2000만 원가량 높아진 것이다.

이 같은 장점에 최근 도심 속 이전 부지들의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우선 한국광물자원공사 옛 사옥 부지에는 최고 29층 높이의 주상복합건물인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가 들어설 예정이다. 협성건설이 6월 선보이는 이 단지는 공동주택·업무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단지로 조성된다.

또한 분당에서는 분당가스공사 이전 부지에 주상복합단지인 ‘분당 다상 파크리베’가

도심 속 이전부지 신규 분양단지

※ 자료 : 각 건설사

기존 부지	신규 조성 단지	건설사	분양시기
옛 한국광물자원공사 부지	동작 협성휴포레 시그니처 공동주택·업무시설·상업시설·문화시설 갖춘 랜드마크 복합단지	협성건설	6월
옛 분당가스공사 부지	분당 다상 파크리베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구성된 복합단지	포스코건설	5월
옛 국립종자원 부지	안양 센트럴 헤센 2차 아파트, 오피스텔 구성된 복합주거단지	신버두개발 /신한종합건설	5월
옛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	나인원 한남 지하 3층, 지상 5~9층 최고급 주택단지	디에스한남 /롯데건설	미정
옛 유엔사 부지	주거·상업·업무·문화·호텔 등 복합단지	일레븐건설	미정

조성될 예정이다. 공동주택,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는 복합단지로 분당에서 15년 만에 공급되는 새아파트다.

경기도 안양시의 옛 국립종자원 부지도 복합주거단지 ‘안양 센트럴 헤센 2차’로 탈바꿈하고 최근 관심이 높은 한남동 외국인아파트 부지에서 분양 예정인 ‘나인원한남’은 지하 3층, 지상 5~9층으로 조성되며 현재 분양보증금의 접수를 준비 중이다.

유선구청 인근 유엔사 부지 개발에 나선

일레븐건설도 주거·상업·업무·문화·호텔 등으로 이뤄진 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이전 부지 상당수는 각 지역의 도심에서도 요충지에 위치한 만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이미 검증된 입지로 볼 수 있다”며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유지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기에 이전 부지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성형 기자 carlove@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사용 불편...작년 일반인 비중 7.6%

올들어 37.6%로 늘었지만

휴대폰 명의·공인인증서 등
 전자계약 절차 간소화 필요

국토교통부가 ‘페이퍼리스’ 거래를 위해 구축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하 전자계약)’의 민간부문 사용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자계약

을 통해 이뤄진 거래는 706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 계약은 537건(7.6%)에 불과했다. 공공부문 계약은 약 92.4%(6525건)에 달했다.

올해 들어 민간부문 계약이 증가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공공부문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지난해까지 전자계약은 2235건 거래됐다. 이 가운데 민간부문은 841건(37.6%), 공공부문은 1394건(62.4%) 각각 이뤄졌다.

거래 일선에서는 전자계약 절차를 지금보

다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전자계약을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범용 또는 특수목적용), 회원가입을, 중개의뢰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신분증을 각각 준비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해 불안한 점이 있다”며 “휴대폰 인증의 경우 대리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부로부터

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감정원은 추후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폰 본인 확인 절차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은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법을 충족해야 한다”며 “전자서명 절차를 법에 따라서 진행했는데 나가 관건인데,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처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결국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임대업자를 대상으로도 전자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부문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금주의 분양캘린더

5월 둘째 주는 전국에서 총 1224가구가 분양한다.

8일 부산114에 따르면 이주 수도권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 A2(공공실버)’ 190가구, 지방은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정관A4’(행복주택) 등 1034가구를 공급한다. 지난주 아파트 청약시스템 개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되고 견본주택 개관이 지연되면서 청약 접수를 진행하는 민영 아파트는 없다.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A2(공공실버)’ = 대보건설은 경기 시흥시 은행동 233-2에 ‘시흥은계A2(공공실버)’를 분양한다. 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23.88㎡ 단위 구성으로 총 190가구로 되어 있다. 이 단지는 실버주택으로 공급되며 가구마다 욕실 안전손잡이와 바닥이 욕실문, 욕실 비상벨과 현관 안전 손잡이 등이 설치돼 노령층 생활에 적합하다. 소사-원시복선전철(6월 개통)을 이용할 수 있다. 청약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날짜	구분	시도	시군구	읍면동	아파트명		
5/9(수)	접수	경기	시흥시	은행동	시흥은계A2(공공실버) (~5/11)		
				양양군	강현면	양양물치강선(국민임대) (~5/11)	
5/10(목)	접수	부산	기장군	정관읍	부산정관A4(행복주택) (~5/14)		
				서울	강동구	성일동	고덕자이
5/11(금)	오픈	경기	의왕시	오전동	의왕대림캐슬		
				경기	수원시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
				경기	용인시	성북동	성북역롯데캐슬파크리인(2단지)
				인천	남구	도화동	인천도화금강엔터테인먼트파크(2-3BL)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신도시서비스타운2차(B1)
				충북	청주시	내덕동	청주힐즈파크푸르지오
				충북	청주시	용암동	동남힐스테이트The와이드(민간임대)
충북	청주시	방서동	청주동남지구우미린플러하우스(B7)				

(주1) * = 오피스텔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픈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美 금리 인상의 그림자... 2년 만에 첫 신흥국 자본 유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 비상이 걸렸다. 신흥국은 자국 통화 방어에 나서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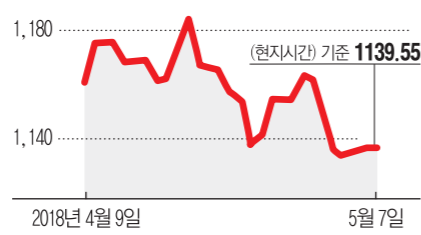
7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달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투자 자금이 유출됐다면서 자금 유출이 확대될 경우 세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달 해외 투자자들은 신흥국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2억 달러(약 2154억 원)를 순매도했다. 이에 해외로부터 신흥시장으로의 투자 자금은 유출 초과로 돌아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시장의 경계심이 강해진 2016년 11월 이후 처음이다. IIF는 "심각한 자금 흐름의 역류가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특히 4월 16일 이후 자금 유출 규모는 55억 달러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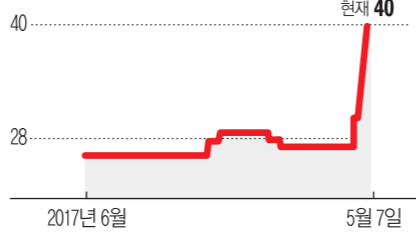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해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 커진다.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국이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에 나서면서 투자 자금은 비교적 수익률이 높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왔다. 올해 1~3월에도 신흥국 증시와 채권 시장으로 509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며 통화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고

4월 2억달러 순매도...국제금융협 "심각한 자금 역류"

MSCI신흥국지수 추이 (단위: 달러) ※출처: 마켓워치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추이 (단위: %) ※출처: 블룸버그



美 연준 6월 금리 인상 앞둔 증권·채권시장 타격 커질 듯

아르헨 기준금리 40% 인상 등 긴축에 긴축으로 대응해도 신흥국 통화 가치 줄줄이 하락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신흥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미국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주 신흥국 증시 벤치마크인 MSCI신흥국지수는 1.74% 하락했다.

달리화 강세 흐름도 자본 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3월 말부터 지난 2일까지 낮

케이화인덱스 등락률을 보면 주 25개 통화 중 달러 가치는 2.3% 올랐다. 반면 러시아 루블화는 7.4% 하락하고 브라질 헤알화는 3.5%, 멕시코 페소화는 3.4% 각각 떨어지는 등 신흥국 통화 가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MSCI신흥국통화인덱스는 지난주 0.6% 떨어졌다. 이는 5주 연속 하락으로 2015년 8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지속한 것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신흥국은 자국 통화 가치 하락과 이에 따른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경기가 악화할 우려가 있다. 달러 채무의 상환 부담이 커지는 것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에 각국이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달 말부터 약 일주

일에 걸쳐 세 차례나 금리를 인상했다.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자 금리인상으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올해 초 1달러에 18페소대였던 페소화 가치는 지난달 말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3일에는 역대 최저 수준인 22페소대로 곤두박질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기준 금리를 27.25%에서 40.0%로 올리는 긴급 인상을 단행했다.

타키 중앙은행도 지난달 말 0.75%포인트의 금리인상을 단행했으나 통화 가치 하락에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양새다. 리라화 가치는 연초보다 10% 넘게 떨어졌다. 3일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리라화 가치가 급락했고 4일에는 한때 1달러에 4.28리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일 타키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제가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타키 대통령은 경기 악화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우려해 대통령 선거와 총선 시기를 내년 가을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겼다.

루카 파올리니 픽테에셋매니지먼트 수석 전략가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가운데 연준이 계속 금리인상을 단행해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 변동성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주혜 기자 winjh@

'이란 핵합의' 결론은... 트럼프의 입, 내일 열린다

(한국시간 9일 오전 3시)

국제유가 70달러선 돌파 2014년 말 이후 WTI 최고가 마크롱 "전쟁 일어날 수도" 경고

국제 원유시장에 긴장감이 팽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 파기 우려가 커져 7일(현지시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가 70달러(약 7만5400원) 선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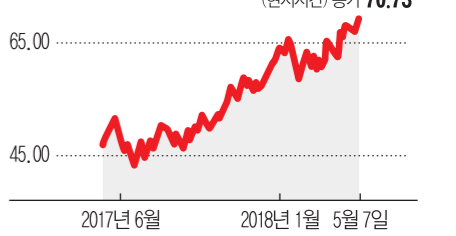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는 불안이 원유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P5+1(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독일)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 이란 핵합의 이행 연장 마감일을 앞두고 미국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반영된 재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위협해왔다. 이날 트럼프는 트위터에 "이란 핵합의 결정을 8일 오후 2시(한국시간 9일 오전 3시) 백악관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다.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다시 받으면서 원유 공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란발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팽배해져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5% (1.01달러) 오른 배럴당 70.73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은 2014년 11월 26일 이후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70달러 선에 안착한 상태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는 전 거래일 대비 1.7% (1.30달러) 상승한

지난 1년간 WTI 가격 추이 (단위: 배럴당 달러) ※출처: 블룸버그



76.17달러를 기록했다. 이 역시 2014년 11월 말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IHS마크리트의 빅토르 슐 애널리스트는 "최근 원유 가격 급등은 트럼프의 제재에 이란의 원유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이란 제재를 다시 가하면 일일 100만 배럴의 원유 공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슐 애널리스트는 2012년 이란에 대한 다국적 제재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유럽연합(EU)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핵협정을 파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기 때문에 EU는 새로운 제재를 내놓지 않을 수 있다. 전날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라며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이란에 다시 제재를 가하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 일본 인도 등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실제로 뒤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ACLS글로벌의 마셜 지틀러 수석 애널리스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나 북핵과의 대화 국면을 만들 때도 그랬듯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협상 전 위협하는 스타일"이라며 "이러한 위협의 끝은 결국 정상적인 타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美 법무 "불법 이민자 부모, 아이와 격리"...멕시코 코앞서 경고



제프 세션스(앞) 미 법무 장관이 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멕시코 국경지대 산이시드로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세션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미 정부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자들에게 더욱 엄격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무관용 원칙이 새로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아이들과 강제로 떨어져 지는 부모들도 있을 것" 밝혔다. 이어 "아이와 격리되지 않음은 아이를 불법으로 들여보내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이후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 부모와 헤어진 아동은 700명에 달한다. 산이시드로/AFP연합뉴스

어벤져스도 디즈니 주가는 못 살려...내년부터 스트리밍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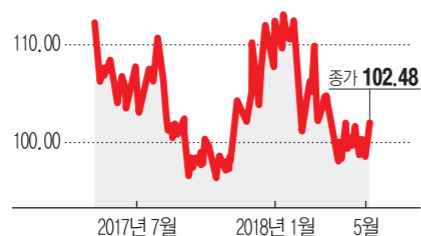
흥행에도 1년새 주가 9% 하락 넷플릭스는 같은 기간 107% ↑ 같은 무대로 옮겨 정면승부 예정

월드디즈니의 최신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가 전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기록하고 있지만 디즈니 주가는 침몰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디즈니 주가는 1.3% 올랐지만 최근 1년간 하락 폭이 9%에 육박한다. 디즈니 영화가 아무리 히트해도 투자자들이 무관심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디즈니는 넷플릭스처럼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에 나서 확고하게 자리를 굳혀야 시장의 관심이 살아날 것이라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망했다.

특히 최근 개봉한 영화들이 잇따라 흥행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주가가 이를

월드디즈니 주가 추이 (단위: 달러) ※출처: CNBC



전혀 반영하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는 개봉 첫 주말 6억4000만 달러(약 6895억 원)로, 첫 주말 기준 역대 세계 1위 흥행 수입을 올렸다. 또 개봉 11일 만이라는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10억 달러 수입을 돌파했다. 세계 2위 영화시장인 중국에서는 아직 개봉하지 않아 새로운 흥행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월 개봉한 블랙팬서도 북미 흥행 수입 역대 3위라는 대히트를 기록했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세계 최대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다. 시장은 넷플릭스의 가입자 증가 소식에 크게 반응했다. 지난달 중순 실적 발표에서 가입자 수가 예상을 크게 웃돈 증가세를 보이자 주가가 하루 만에 10% 가까이 폭등했다. 지난 1년간 주가 상승폭은 약 107%에 달한다.

증시에서 디즈니는 넷플릭스와 시가총액이 역전될 유기에 놓였다. 디즈니 시총액이 약 1500억 달러인 가운데 넷플릭스가 1391억 달러로 바짝 그 뒤를 쫓고 있다. 영화는 관객들이 한 번 보면 끝이지만 넷플릭스는 유료 회원을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시장의 인정을 받아왔다.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의 대두로 미국에서는 최근 케이블TV를 해지하는 '코드 커핑'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디즈니는 주요 케이블TV 사업이 부진에 빠진 것이 주가 침체 계기가 됐다.

디즈니는 영화가 인기를 끌면 관련 상품 판매와 테마파크 관광지 건설 등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디즈니 팬들은 넷플릭스 회원 수처럼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어서 시장에서 좀처럼 평가하기 어렵다.

디즈니에도 승산은 남아있다. 디즈니는 내년 자체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시작해 넷플릭스와 정면 승부를 벌인다. 넷플릭스는 현재 전 세계 회원 수가 1억 2500만 명에 이른다. RBC캐피탈마켓의 스티븐 카할 애널리스트는 "디즈니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초기 50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넷플릭스와 같은 무대에서 싸우게 되면 풍부한 인기 콘텐츠가 디즈니의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넷플릭스의 성공을 보면 우리도 큰 기회가 있는 셈"이라고 자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네슬레, 스타벅스 커피 판매한다

소매점 판매권 7.7조원에 사 스타벅스는 커피숍에 더 집중

세계 최대 식품업체 네슬레와 세계 1위 커피숍 체인 스타벅스가 손을 잡았다.

네슬레는 스타벅스 브랜드의 커피와 차를 소매 매장 및 식료품점 등 자사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스타벅스로부터 판매권을 71억 5000만 달러(약 7조7006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스타벅스가 커피 판매권을 네슬레에 매각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사 사업 핵심인 커피숍에 좀 더 집중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슈파마켓 등에서 단기간 랜즈그룹에서 맥도날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체들이 커피 브랜드를 내놓으면서 소매 매장에서의 커피 판매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스타벅스의 소비자 패키지 사업은 지난해 10월 1일 마감한 2017 회계연도에 18억 달러 매출을 창출했으나 이는 스타벅스 총 매출의 8%에 불과했다. 리서치업체 유로모니터의 마이클 새퍼 식품·음료 부문 책임자는 "소비자는 중요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지만 그 규모는 작다"고 지적했다.

스타벅스는 현재 경쟁 격화에 따른 방문객 감소 등 커피숍 매장의 부진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스타벅스는 '로스터엔드러브' 등 고



뉴욕 맨해튼의 타깃 매장에 진열된 스타벅스와 네슬레의 커피 제품. 뉴욕/AFP연합뉴스

급 매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민텔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약 3만3000개의 커피숍이 있는데 이는 5년 전보다 16% 늘어난 것이다.

또 스타벅스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시장으로 떠오를 중국에서 더 많은 커피숍을 열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최근 상하이에 로스터리 매장을 개설했다. 케빈 존슨 스타벅스 최고경영자(CEO)는 "미국과 중국의 커피숍 사업은 양대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네슬레는 스타벅스 커피 판매권 확보를 통해 미국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네슬레는 스타벅스 리저와 시애틀스 베스트 커피, 스타벅스 비아와 토레파치아네 이탈리아 등 다양한 스타벅스 커피 제품과 차 브랜드인 티바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네스카페와 네스프레소 브랜드에 스타벅스를 추가해 커피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상가 투자, 세입자 관점에서 봐야 성공”

투자 금액 큰 만큼 고수익 가능
세입자 특성·업종 관심 가져야
발품 팔며 서울 상권 40곳 분석
교통·지형·수요 등 순으로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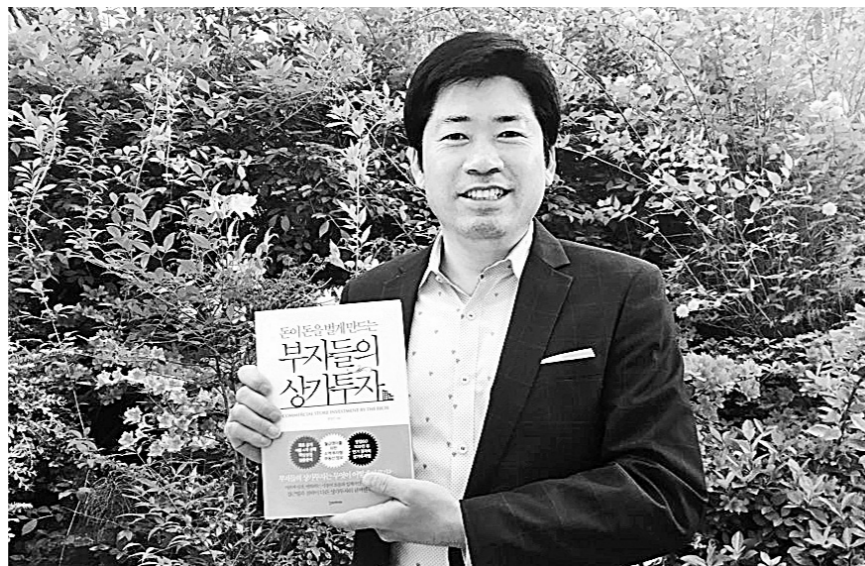
부자들은 수익부동산에 어떻게 투자할까.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2007년부터 부동산과 창업 시장에 대해 컨설팅을 제공해오고 있다. 그리고 최근 이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부자들의 투자 비결을 책 한 권에 담았다. 지난달 30일 출간된 '부자들의 상가투자'의 예가다.

권 이사는 자신이 만나 온 부자들에게 대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지, 그러려면 무엇에 투자해야 좋을지 등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다”며 “이러한 부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이 상가나 건물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를 통해 안정적으로 월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발표한 '2018 한국 부자보고서'의 상업용

‘부자들의 상가투자’ 저자 권강수… 투자비법 공개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4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세입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서 상가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며 “세입자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상가 투자를 성공하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2.9%가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상가와 건물이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부동산 투자 계획에서도 건물과 상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47.6%로 가장 높았다.

특히 상가투자는 흔히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꽃으로 통한다. 투자 금액이 큰 만큼 투자 성공 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반면 실패할 경우 출혈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더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한다고 권 이사는 조언한다. ‘세입자 관점에서 바라보기’는 권 이사가 짚는 상가투자 성공의 열쇠다. 그는

“상가투자에서 성공은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꾸준히,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게 받는 것”이라며 “결국 세입자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고 더 나아가서 상가 가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 가치를 극대화하려면 상품별 세입자의 특성, 그중 상가의 경우 어떤 세입자가 어떤 업종으로 어떻게 점포를 운영해야 좋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부자들의 상가투자’는 크게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상권분석, 2가지 주제를 다룬다. 단편적인 정보 정책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오랜 시간 읽기 좋다는 것이 권 이사의 설명이다.

직접 발품을 팔며 조사한 서울 40개 지역의 상권 분석은 그가 이 책에서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대목이다. 권 이사는 “좋은 상권과 안 좋은 상권을 구분하기 위해선 먼저 큰 것을 보고 이후에 점점 시야를 좁혀나가며 세밀하게 작은 것을 따져야 한다”며 “상권을 시작으로 교통, 지형, 수요, 입지, 동선 등 순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신철 기자 camus16@



박성현이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475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텍사스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에서 최종합계 11언더파 131타로 우승을 차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LPGA

박성현, LPGA 9개월만에 ‘V’

‘텍사스 클래식’ 최종 11언더파… 세계 랭킹4위로 점프

‘슈퍼스타’ 박성현(25·KEB하나금융그룹)과 유소연(28·메디힐)이 세계여자골프랭킹에서 자리 바꿈을 했다. 박성현은 4위로 올라가고 유소연은 5위로 내려갔다.

박성현은 기상 악화로 인해 36홀로 축소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LPGA 아메리카 볼런티어스 텍사스 클래식(총상금 130만 달러, 우승상금 19만5000달러)에서 우승했다. 박성현은 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더플로니의 월드 아메리칸 골프클럽(파71·6475야드)에서 열린 최종일 2라운드에서 5타를 줄여 합계 11언더파 131타를 쳐 린디 던컨(미국)을 1타차로 제치고 우승컵을 안았다.

집사 두 방이 우승을 견인했다. 4번홀(파5)에서 집사로 친금의 이글,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집사이 우승 버디로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캐나다인 퍼시픽 위민스 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올 시즌 한국(계) 선수는 LPGA 투어 11개 대회에서 6승을 올렸다. ‘무서운 투키’ 고진영(23·하이트)이 물꼬를 텄고, 재미교포 미셸 위, 박인비(30·KB금융그룹), 지은희(32·한화큐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가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박성현이 해냈다. 한국은 시즌 4승이다.

지난주 대회에 불참한 박인비는 1위를 유지했지만, 유소연은 1계단 밀려났다.

김해림(29·삼천리)은 10계단 상승한 41위로 경종 뛰었고, 일본에서 우승한 신지애(30·스리브트)도 4계단 올라 24위에 랭크됐다.

김해림은 6일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파71·6383야드)에서 열린 최종일 KPGA투어 교촌 허니 레디스 오픈(총상금 5억 원)에서 우승하며 동인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안정한 골프대기자 golfahn58@

‘홍진기 창조인상’에 여자 컬링 대표팀

유민문화재단이 제9회 홍진기 창조인상 수상자를 7일 발표했다.

올해 과학기술 부문 수상자로는 박용근 카이스트 물리학과 교수가 선정됐다. 박 교수는 3차원 입체영상으로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레이저 홀로그래피 현미경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사회 부문에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딴 여자 컬링 국가대표팀(김민정 감독, 김경애, 김영미, 김선영, 김초희, 김은정 선수)이 수상했다. 이들은 컬링 불모지에서 은메달을 획득해 국민 통합을 이룬 공로를 인정받았다.

문화예술 부문 수상자로는 류재준 작곡가가 선정됐다. 폴란드 작곡가인 크시슈토프 펜데레츠키의 공식 후계자인 그는 세계를 누비며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상은 고(故)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유지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상식은 8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김진희 기자 jh6945@

삼성SDI 네쌍둥이, 아빠 직장으로 첫 나들이

정형규씨 출생 150일 자녀·가족 어린이날 가족초청행사 참석

삼성 SDI는 올 초 다둥이 출산으로 화제가 된 ‘네쌍둥이’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부모 회사인 삼성SDI 기흥사업장을 찾았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네쌍둥이와 다섯 살인 큰 딸 서하 양까지 다섯 아이들의 나들이를 위해 아빠, 엄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총출동했다.

네쌍둥이의 아빠인 정형규 삼성SDI 책임과 엄마 민보라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아들 셋, 딸 하나의 이란성 네 쌍둥이 시우, 시환, 윤하, 시윤을 출산했다. 회사는 네쌍둥이 출산 스토리가 알려지면서 이들 부부는 회사, SNS에서 인기인이 됐다고 전했다. 동료들로부터 출산, 육아 선물 이어졌고, 육아 일상 사진을 올리고 있는 민보라 씨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가 1만4000명을 넘었다.

정 책임 부부는 “네쌍둥이를 낳으면서 회사 동료들의 배려, 사회적 관심과 도움



삼성SDI 가족초청행사에 참석한 ‘네쌍둥이’ 정형규 책임 가족이 삼성SDI 배터리가 채용된 BMW 전기차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SDI

까지 받다 보니 나눔의 가치를 느끼게 됐다”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회사 동료들에게도 보여주고 싶어서 150일 맞아 첫 나들이로 오늘 행사에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삼성SDI는 어린이날을 맞아 기흥·수원·천안·청주·구미·울산 전국 6개 사업장을

개방하고 임직원 가족초청행사를 열었다. 이날 전국 6개 사업장에 참석한 임직원 가족은 총 8600여 명에 이른다. 전기차 시승, 스마트 캐리커져, 쿡킹 클래스, 소화가 방법 교육, 심폐소생술 교육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안전교육을 펼쳤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호텔신라 ‘맛있는 제주 만들기’ 20호점 오픈

어버이날 맞아 재개장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호텔신라가 펼치는 제주지역 상생 프로젝트 ‘맛있는 제주만들기’ 20호점이 문을 열었다.

호텔신라는 ‘시니어스맛 아리랑’이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내세워 8일 재개장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개장식에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맛있는 제주만들기’ 1호점부터 19호점까지의 영업주들도 모여 ‘시니어스맛 아리랑’ 영업주들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주며 20호점의 재개장을 함께 축하했다. 재개장식 이후에는 지역 독거노인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며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겼다.

‘시니어스맛 아리랑’의 영업주들은 역대 맛있는 제주 만들기 영업주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다. 현재 식당을 함께 운영하는 4명의 나이를 합치면 291세에 이른다. 기존의 맛있는 제주 만들기 식당들이 생계형 영업인 것과 달리 20호점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호텔신라는 식당 운영을 맡은 어르신들과의 면담과 인근 관공서와 사무실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한 주변 상권조사를 바탕으로 20호점만의 차별화된 음식 메뉴를 개발하고 노하우를 전수했다. 20호점이 선보이는 음식 메뉴는 ‘할랑순두부’, ‘가시어명 김밥’, ‘어명 김밥’ 등 3가지다. ‘할랑’은 제주도 방언으로 ‘할머니’를 뜻하며 ‘어명’은 어머니를, ‘가시어명’은 친정어머니 또는 장모님을 뜻한다.

호텔신라 관계자 “20호점은 어버이날에 개장해 더욱 의미가 있으며 어르신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돕는 데 맛있는 제주 만들기가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mj@

인사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실장급 전보> △경제조정실장 최장원
- ◆기획재정부 <국장급> △관세국제세정서관 이호동
- ◆환경부 <임용> △감사관 김영석
- ◆중소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 이인섭>
- ◆미래에셋대우 <PB이사 승진> △금천WM 김대수 △신반포WM 김주영 △WM강남파이낸스센터지원대·최철식·김

부음

- ▲박영숙씨 별세, 김동호(대전 미소가 득한나과 원장)·영희(상지대 법학과 교수)씨 모친상, 안영복(오스테오시스 대표)씨 장모상, 김진희(대전우리병원 영상의학과 원장)씨 시모상 = 6일, 대전 성심장례식장, 발인 9일 오전 9시, 042-522-4494
- ▲이순옥씨 별세, 양성원·성국·태욱(충북MBC 영상미술센터장)·정란·정자씨 모친상, 유태길·이경희씨 장모상, 김인나·김지희·노주란씨 시모상, 양지원·지윤·석원·승주·승만·승훈 조모상 = 6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9일 오전 6시 30분,

- 031-781-6722
- ▲주용길(카이스트 명예교수)씨 별세, 고경선(전 중앙대 자연과학대 학장)씨 남편상, 주영준·영은씨 부친상, 활랜용씨 장인상, 이상희씨 시부상 = 7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후 12시, 02-3410-6917
- ▲최석원씨 별세, 김재수씨 남편상, 최문석(삼성서울병원 교수)·문수·문진(회계법인 원 이사)씨 부친상, 홍연·송운주·최정희씨 시부상 = 6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9일 오전 9시 30분, 02-3410-6920
- ▲홍민표씨 별세, 이종열(SBS 스포츠해설위원)씨 장모상 = 7일, 서울원자력병원, 발인 9일 오후 12시, 02-970-1551

정현, ATP 세계 랭킹 21위로

BMW오픈 4강 진출로 한단계 ↑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22·한체대)의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식 세계랭킹이 5주 만에 21위로 올라갔다.

7일(한국시간) ATP 세계 랭킹에서 정현은 BMW오픈 4강 진출로 인해 22위에서 한 계단 위인 21위로 상승했다.

정현은 지난달 2일 ATP 랭킹에서 사상 첫 20위권을 돌파하며 23위에서 19위로 상승해 4주 연속 자리를 지켰으나, 바르셀로나오픈 기권 여파로 지난주에는 22위로 순위가 떨어졌었다.

정현은 이번 주 무투야 마드리드오픈 1회전에서 로빈 하세(44위·네덜란드)와 맞대결한다.



마드리드오픈은 1년에 9번 열리는 마스터스 1000시리즈 중 하나로, 단식 우승자는 ATP 랭킹 포인트 1000점을 획득한다. 이 대회 결과에 따라 정현은 10위권 재진입을 노릴 수 있다.

라파엘 나달(스페인)은 6주 연속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다. 이재영 기자 ljay0403@

5월 엔지니어상에 이희철·안정원씨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5월 수상자로 이희철 세메스 책임(원측)과 안정원 오펜케이بل 이사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기업 수상자인 이희철 책임은 반도체 후공정 분야에서 바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기존 기술은 칩을 집적테이프에서 떼어낼 때 물리적인 접촉으로 인해 칩에 균열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지만 이 책임은 이를 박리하는 에어 블로 이젝팅(Air Blow Ejecting) 방식을 개발해 칩 생산성을 45% 향상시켰다.

중소기업 수상자인 안정원 이사는 전선의 생산공정 중 저선량에 따른 작업 빈도수와 불량률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저선량 증대를 통한 작업 효율 향상 및 불량률 감소 등 기간산업인 전선제조업의 공



정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선정됐다. 안 이사는 동종업계의 공통적인 불량률과 작업자들의 비효율적인 동선의 원인인 저선량을 기존 대비 56% 향상시켰으며 이를 통해 작업 효율을 최적화하고 작업자 동선을 최소화하는 등 공정 개선을 실현해 제품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준다. 조성준 기자 tiatio@



조에린의 벤처칼럼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경영학과 교수

펀딩 성공의 신화를 경계하라

“언제 펀딩을 받는 게 좋은가요?”라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필자의 충고는 가능하면 펀딩 없이 진행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하고,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업 경험이 없는 젊은이들이 흔히 기가 막히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투자를 받아 사업이 순조로이 진행될 것이라는 단순하고 과도한 긍정심으로 일을 시작한다. 펀딩을 받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고 펀딩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성공인 것처럼 아는 경우가 많다. “가나 벤처가 시리즈 A 펀딩으로 100억 원을 유치, 다라 벤처가 시리즈 B로 500억 원을 유치...” 이런 소식이 언론이나 SNS에 나오면 축하와 부러움의 목소리가 크다. 그 반면(反面)의 현실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펀딩은 일종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 필요하다. 빛을 내어 투자하는 것이 옳은 상황도 있지만, 이 세상에 어떤 빛도 갇아야 하는 남의 돈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특히 감당하지 못할 빛을 지면 안 된다는 원리가 벤처에서도 적용된다.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 하더라도 결국 잠 못 자고 피를 말리면서 일하는 것이 펀딩을 준 벤처캐피탈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약 8년간 벤처를 일구어 2000년 대 초 그리 적지 않은 가치로 인수 합병에 성공해 사업을 넘긴 분이 있었다. 그분과 초기 멤버에게 돌아간 경제적 이윤은 그 긴 시간 머리가 빠지도록 스트레스 받으며 노력한 결과에 비해 너무도 초라했다. 이에 반해 한 번의 외부 투자 없이 커온 인터넷 패션회사가 글로벌 화장품 기업에 지분을 인계하며 30대 창업자가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을 냈다는 신문기사가 있었다.

펀딩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가치 평가다. 펀딩의 규모가 얼마일 때 얼마의 지분을 가질 수 있는지는 계산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종종 나중에 곤란하게 되는 중요한 계산이 있다. 이른바 포스트 밸류에이션 (post-money valuation)이다. 자금 유치를 하고 나서 계산되는 가치평가인데, 당연히 투자를 받은 후 가치평가는 투자를 받기 전보다 커진다. 이윤 창출과 성장의 기대치도 올라간다.

그러나 펀딩을 받았다고 바로 생각만큼 의미 있는 성장을 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이에 올라간 기대치를 맞추려고 걸으며 보이는 확장을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외부 경제지표나 기업 환경이 나빠져 성장 속도가 펀딩 받기 전으로 정체되었을 때, 내가 가지지 않은 물건을 판 것 같은 상황이 되어 벤처를 큰 어려움에 밀어 넣고 조들림을 당할 수 있다.

투자를 받게 되면, 특히 규모가 큰 투자를 유치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중요한 결정에 투자자들의 직·간접적 간섭을 피하기 어렵고 과도한 경영 간섭에 족쇄를 차고 전횡타에 나가는 듯한 제약과 마음고생을 해야 한다. 투자가 벤처국 잡 못 자고 피를 말리면서 일하는 것이 펀딩을 준 벤처캐피탈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자동차가 먼 길을 갈 때 주유가 필요하듯 펀딩은 중요한 벤처 활동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펀딩을 향해, 펀딩을 목표로 벤처 활동을 잡아서 절대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하고 중요한 것은 이익 잉여금으로 셀프 펀딩이 될 수 있는 자체 엔진을 만들고 키우는 것이다. 잘못 된 펀딩은 벤처를 기우기는 커녕 간단히 죽일 수도 있는 위험한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김병준의 말



국민대 명예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드루킹’이 주는 숙제

이를 조작하고, 이를 통해 권력과 돈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의 경우 미래비전도 전략도 없이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상황이다. ‘드루킹’처럼 ‘맛글 부대’를 만들어 정치를 이리저리 요리하는 게 얼마나 재미나겠나.

이렇게 되물을 수 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광고와 협찬 등을 통해 신문기사를 사들여 고, 광화문의 시위대는 자신들이 가진 표의 10배, 100배의 힘을 행사하지 않느냐, 국정원이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모여 맛글로 영향력 행사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민주시민의 권리와 자유의 무너짐이냐.

명백히 아니다. 광고나 협찬은 책임을 지고, 시위도 책임을 진다. 잘못될 경우 그 주체들이 국민적 질타를 받기도 하고, 매서운 역사적 평가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맛글은 그렇지 않다. 많은 경우 익명성과 대량성의 커튼 뒤에 숨어 있어 그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책임이 없으니 고민이 깊을 수 없다. 무슨 문제든 그 문제의 원인이 되는 정치, 경제, 사

회적 구조에 관한 이야기는 뒤로 가고,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내 편’, ‘내 편’의 손쉬운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된다. 의제의 왜곡, 즉 정작 다루어져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정책이나 정치 의제가 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책임이 없으니 논리보다 감성이 앞선다. 언어 또한 거칠어진다. 마음에 들면 미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언어 폭력을 퍼붓고, 그러는 가운데 보상과 징벌의 체계가 무너진다. 열 마디의 칭찬보다 한마디의 모욕이 더 크게 들리는 법.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 정치와 행정으로부터 멀어진다. 결국 인력충원 체계까지 무너뜨리게 된다는 말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네이버 등 포털은 달 수 있는 댓글 수와 시간 간격을 제한하고 나섰고, 정치권에서는 검색 순위에 따라 기사를 배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생기면 편법 또한 생기기 마련. 익명성이 강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규제 강화보다는 책임을 묻는 것이 우선 아닐까. 댓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에 대

한 책임을 확실하게 하는 것 말이다. 이를테면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아웃링크’ 즉, 정보를 클릭하면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 되었지만 그렇게 하면 이들 사이트가 자신들의 권리와 정책에 의해 실명제를 운영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댓글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고.

쉬운 일 아니다. 포털과 언론사, 그리고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걸린 일이다. ‘아웃링크’ 문제만 해도 포털의 소극적 태도뿐만 아니라 언론사마다 다른 입장이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 마음대로, 때 지어 욕하고 미화하고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 착각하는 자들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가 무엇이고 책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이번의 드루킹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이다. 우리 모두 이 숙제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설픈 규제 몇 개 더하는 것을 넘어서서 말이다.

알송담 송담

모은여해인자한(母恩如海人子恨)

1950-80년대에 목포에서 주로 활동한 시인 김일로(1911-1984)는 선시(禪詩)와 같은 경지의 시를 썼고, 또 한글 시와 한문시의 오묘한 결합(契合)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문학사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예를 들자면, “땡 소리 귀에 담는 황소 눈에 흰 구름”이라는 짧은 시로 한가한 봄날의 풍경을 읊은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문시로 치환하여 “錦繡山河春日長(금수산하춘일장·錦·비

단 금, 繡·수놓을 수)” 즉 “금수강산이 산하에 봄날은 길어”라고도 읊었다. ‘송산하(頌山河)’라는 시집을 한 권 남겼다.

필자는 작년에 이 시집의 한문 부분에 대한 번역과 함께 시인의 높은 뜻을 풀어 ‘꽃피 하나 얻으려고 일 년, 그 꽃 보려고 다시 일 년’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다.

그런 김일로 시인이 어머니의 은혜를 “포근한 가슴에 새긴 슬픔 지우질 못해 찾는 보

살님”이라고 읊었다. 그리고선 다시 한문을 사용하여 “母恩如海人子恨(모은여해인자한·母·은혜 은, 如·같을 여, 海·바다 해, 恨·한 할 한)”이라고 읊었다. “어머니 은혜는 바다와 같으니 자식은 그해 한스럽습니다”라는 뜻이다.

포근한 어머니 가슴에 내가 새긴 게 무엇인지 어머니는 전혀 모르는데 나는 안다. 거짓말도 많이 했고 말썽도 많이 부린 줄을 나는 아는데 어머니 가슴에는 그런 게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래서 슬프다. 내가 어머니 가슴에 새긴 그 또렷한 그것을 지우지 못

해 뜨겁게 다시 찾는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는 애저녁에 보살님이 되었다.

어머니 은혜가 강(江)만 하다면 갇아볼 염두라도 내 보냈지만 광양대해(茫茫大海)이니 갇을 길이 전혀 없다. 그래서 슬프다. 아버님이라 해서 다들 바 없다. 아버님 가슴에 아무리 많은 것을 새겨놓았어도 그저 목격한 눈길로 굽어보시며 끝내 내에 대한 믿음을 거두지 않으셨던 아버지의 사랑. 어버이날만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식이 또 그렇게 대견할 것이다. 어버이께서는.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모저모 대학 축제 캠퍼스 주점 금지령 “낭만 사라진다” VS “건전한 문화 기대”



5월 본격적인 대학 축제 기간을 앞두고 캠퍼스 내 ‘대학생 주점’에 대해 국세청이 주세법 위반을 근거로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각 대학 총학생회는 봄 축제 기간에 주점 등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행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이 술을 팔지 않도록 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주세법에 따르면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술을 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학별 총학생회는 시급히 ‘술 판매 없는 대학 축제’로 계획을 변경했다. 하지만 축제를 1-2주 앞두고 국세청과 교육부에 의해 떠밀리기식 주점 운영 금지가 이뤄지는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관례로 최근까지도 주류 판매업 면허가 없더라도 대학 축제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을 국가가 엄격히 제지하지 않았고, 국세청과 교육부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이다.

대학가 학생들 사이에선 ‘술 없는 축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대학 축

제의 낭만이 사라진다는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있는 반면, 건전한 대학 축제 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whck****’은 “수십 년간 대학 축제에서 술 파는 걸 목인해왔는데 이제 와서 뒤집겠다고 나서다니. 겨우 2-3일 영업인데 대학가 축제 낭만도 사라지겠네”라며 안타까워했다.

반면 네이버 아이디 ‘geen****’은 “대학 축제에서 주점 금지한 건 잘한 거다. 대학 때 음주문화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잘못 배우는 게 너무 많지. 이참에 대학 축제 문화도 참신하고 다양성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재영 기자 lly0403@

“2중 3중 철통보안으로 빈틈이 없다!”

우리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지문인식 & 터치패드 철통 보안시스템

지문스캐너와 터치패드가 결합된 디지털락은 사용자의 지문이나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또한, 강력한 내화성능 등 안전 필수 기능이 결합된 최첨단 디지털락을 경험해보세요.

- 사용자 비밀번호**
비밀번호 4자리~16자리까지 입력
- 지문 등록**
128개 까지 지문 등록
- 이중 잠금기능**
2개의 비밀번호 설정으로 강력한 보안
- 옛보기 방지기능**
비밀번호 알기/하수를 넣어 노출방지
- 경보기능**
45도 이상 기울거나 충격시 경보음
- 마비기능**
틀린번호 5회 입력시 마비
- 감촉기능**
비밀번호와 소리를 감촉하는 기능
- 저전압 알림기능**
건전지 전량을 감지하여 교체시기 알림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영업시간 평일 9:00~21:00 / 토요일, 공휴일 9:00~18:00

제품구매처 현대오피스 소핑몰 www.hd2.co.kr,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조달청 나라장터, 학교장터, 공무원연금제휴소핑몰, 씨제이올, 신세계올, 1300K, NH마켓, nsmall, 이마트, SSG, 하이마트,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스토어팜, 쿠팡, 티몬, 위메프, 예누리닷컴, 다나와

김치호의 古美術을 찾아서



고미술 평론가 전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세계가 주목하는 분청의 美

〈粉靑〉

우리 도자문화의 뿌리는 말할 것도 없이 원시시대의 토기다. 토기의 제작과 사용은 3세기 무렵 물레의 도입으로 비약적인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는 가야와 삼국시대 중엽에 보편화되었고, 그 창작정신과 조형성은 고려청자와 조선백자로 계승·발전되었다는 것이 우리 도자사(陶器史)의 큰 흐름이다.

문화는 자생적으로 발전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의 영향이나 선진 문물을 주체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융성하기도 한다. 우리 도자문화도 예외가 아니다. 토기는 자생에 가깝고, 청자와 백자는 중국의 도자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것으로 발전시킨 사례다. 그런 찬란한 도자문화가 있어 누구나 다 아는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그 사이에 독특한 아름다움을 오롯이 품은 분청(粉靑) 사기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도자기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겐 낯설지 않은 '분청사기', 줄여서 '분청'.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가 그 독창적인 조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우리 도자 문화유산의 특별한 존재!

분청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그처럼 화려하건만, 부끄럽게도 후손들은 그런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기는커녕 제대로 된 이름조차 붙이지 못했다. 더욱이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조상 분묘의 도굴 현장에서 분청사기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는 그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임진왜란 이후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은 데다, 보존되어 전하는 전제품(傳世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분청사기가 이웃 일본에서는 찻잔(다완)으로 전해져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다도(茶道)를 일으켰고, 저들은 분청사기의 제작 기법, 문양 또는 도요지에 따라 미사마(三島), 하케메(羽毛目), 고히키(粉引), 가다테(堅手), 간카이(金海) 등으로 구별하여 불렀다. 그리고 이도(井戸)다완

과 같은 특별한 명품에는 고유 이름을 붙이는 등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고, 중요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해 오고 있다.

다행스럽게도 조선의 선각자 고유섭(1905~1944)은 일본인들이 붙인 뜻도, 어원도 분명치 않은 그런 이름들을 버리고 새롭게 '분청회청사기(粉靑灰靑沙器)'라고 이름 지었다. 우리가 줄여서 편하게 부르는 분청사기, 분청의 원어 이름이다. 지금에 와서는 국내의 학계는 물론 도예 애호가들 사이에 널리 쓰이는 공인 용어가 되었으니,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그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

수집가들 사이에서 분청의 인기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내가 고미술에 입문한 이후 지난 30여 년 동안 가격 면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분야 몇몇을 꼽으라면 분청이 그중 하나일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 물결은 단연 분청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다. 2011년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열린 '분

청사기 특별전'은 그러한 관심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전시였다. 메트로폴리탄의 특별전은 삼성미술관 리움에 소장하고 있는 57점의 분청사기와 분청의 예술사적 전통과 맥을 같이하는 8점의 현대미술(윤광조의 도예작품, 이우환의 회화 등)로 꾸며진 것이었다. 박물관 측은 이 특별전을 열게 된 배경에 대해 2009년에 자신들이 개최한 '한국미술의 르네상스, 1400~1600'을 통해 그 시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던 분청사기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새삼 주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의 경매에서도 분청은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지금껏 해의 경매에서 한국 도자기에 대한 관심은 주로 고려청자나 조선백자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내재적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분청에 주목할 것으로 본다면 선부는 기대일까? 아무튼 그런 나의 예측이 맞았는지, 4월 18일 뉴욕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분청 편병(扁瓶)이 313만 달러에 낙찰되어 경매 사상 분청으로서는 최고가를 기록했다.

배준호의 세계는 왜? 국제경제부 차장



AI시대, 기본소득제보다 '잡-매칭'

인공지능(AI)의 부상과 함께 기본소득제가 중요한 '화두(話頭)'로 떠올랐다. AI 시대가 오면 수백만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므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내수도 유지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정부는 지난달 기본소득제 실험을 중단해 이 제도가 현실화하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음을 보여줬다.

앞서 핀란드 정부는 지난해 1월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매월 560유로(약 72만 원)를 조건 없이 주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착수했다. 당초 이 실험은 내년까지였지만, 정부는 올해 12월을 끝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핀란드가 이 실험을 한 취지는 AI에 따른 일자리 위협보다는 9%가 넘는 실업률을 낮추려는 의도에서였다. 실업자들이 임시직 일자리라든 구하면 기본소득과 더해 충분히 생활할 수 있어서 장기 실직 상태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아직 구체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지만, 중단한 것 자체만으로도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기본소득제에 역량을 쏟아붓기에 앞서 세계 각국 정부가 AI를 활용한 '잡-매칭(Job-Matching)'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떨까. 산업이 발달하지 않아 마땅한 일자리가 없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하면 구인·구직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일자리 자체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이다. 구직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기업 어디에 있는지 정보가 부족해 실직자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도 막상 필요한 업무에 직원이 없어서 아우성이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소멸 리스크도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워런 버핏은 1월 시사주간지 타임에 기고한 글에서 '혁신과 생산성 향상은 앞으로 경제의 기적을 계속 창출할 것'이라며 "미국은 건국 초기 80% 이상의 사람이 농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업 구조가 격변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돼 실업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다만 이런 변화의 시기에 시급한 것은 실직자가 새 일자리를 금방 찾아갈 수 있도록 매칭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근로자들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여기에 AI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의 분석 능력을 활용해 기업들이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소프트웨어와 유니레버, IBM 등 글로벌 기업들이 AI를 서류 심사 및 면접 등 채용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보수와 근무 환경, 문화 등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AI 플랫폼에 담겨 구직자들이 더 쉽게 자신에게 맞는 기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국가 재정 악화,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 무분별한 소비 조장 등 부작용이 여파하며 발생할 수 있다. AI를 활용한 구직자가 언제나 쉽게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골치아픈 기본소득제 고민을 안 해도 된다. 국민에게 맡기다 품돈을 주고 연명하라고 하기보다는, 일해서 생계도 유지하게 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 더 좋은 솔루션이다.

baejh94@

객석

황 호 봉 우리은행 WM추진부 차장



펀드도 '선구안'이 필요한 시대

〈選球眼〉

2008년 전 세계 금융시장을 뒤흔든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중심에는 '버나드 메이도프(Bernard Lawrence Madoff)'라는 사람이 있었다.

나스닥 증권거래소 회장 출신의 유명 금융인 메이도프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펀드 운용을 한다. 20여 년 동안 우수하고 꾸준한 펀드 수익률을 내어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였는데, 결국 이 펀드가 '폰지(Ponzi·다단계 금융 사기)'로 밝혀졌다. 피해 규모가 650억 달러로 우리 돈 70조 원이 넘었고 글로벌 운용사, 글로벌 은행, 유명 인사들도 사기로 피해를 봤다.

결국 메이도프는 종신형을 받았다. 모든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한 이유는 아무도 그의 사기를 몰랐다는 점이다.

이후 펀드라는 투자 수단은 운용 전략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를 강화하여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긴 하였으나, 여전히 "잘 모르겠다"는 것이 펀드다. 펀드가 재테크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투자자에게는 아직 낯설다는 점에서 투자 수단의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자산운용사의 '운용 철학'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용 철학은 펀드매니저들에게는 어떻게든 영향을 주는 가이드라인에 속한다.

예를 들어 '장기 가치 투자'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운용사에서 '성장주 펀드'가 나온다면 새로운 영역의 도전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례적인 이벤트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운용 과정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 종전에 '해왔던 일들', '하고 있는 사람들'과 동떨어진 운용 전략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공격받기 쉽다.

펀드를 설명할 때 운용사의 리서치 조직에 대한 설명이 빠지지 않는다면, 이것도 유심히 들어보자. 펀드에 조력을 해주는 리서치 조직은 결국 회사의 투자 의지, 매니저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조력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나, 경험상 투자의 안정성을 주는 데에는 분명 일조를 한다. 내 돈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해 줄 수 있는 곳이 낯설을까?

기자수첩

류 정 훈 산업1부/jungh216@



경험, 기대가 결과를 낳진 않는다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리스크를 해소해야 합니다.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기업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난 이후 경험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제단체는 본격적인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북한이 경제 빚장을 열었을 때 열악한 사회기반시설(SOC)이 재정에 부담이 되면서 국내 건설업체가 거대한 수혜를 볼 거란 기대에 주가는 고공행진이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남북경협에 기업에선 반대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비관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남북경협은 완성되기 전까지 완성된 게 아니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기업에 활력도 키우고 시장 파이를 키울 좋은 기회"라면서도 언제 남북관계가 경색될지 모르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1월 신년사를 통해 '통일대박론'을 펼쳤지만, 그로부터 2년 후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였던 개성공단이 갑작스럽게 폐쇄된 걸 이유로 들었다. 지금

은 맞고 그때는 틀릴 수 있겠지만, 남북경협의 실체가 없는 지금 기업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의 기대감에 휩쓸리면 거사를 그르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해도 바로 북한 경제의 대문이 열린 건 아니다.

과정도 쉽지 않은 않다. 일례로 시멘트 업계의 경우 북한으로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선 현장에 시멘트를 보관·납품할 수 있는 시설을 세워야 한다. 원활한 운송을 위해선 철도·도로를 재정비해야 하고, 그 전에는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북한 유엔 제재를 풀어야 하는 등 업계 하나만으로도 거처야 할 단계가 많다.

건설업계에 쏠리는 근시안적인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 기대만으로는 일이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경제는 슬하계 목격했다. 이제 근시안적인 경제 안목에 안경을 씌워 줄 때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김덕현

논설실 (02)799-6701 정치경제부 (02)799-2663 정책사회부 (02)799-2612
 기업금융부 (02)799-2665 산업1부 (02)799-2648 산업2부 (02)799-2641
 자본시장부 (02)799-2664 국제경제부 (02)799-2643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사실팀 (02)799-2646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today.co.kr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가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힘겨운 삶에 지친 이들을 위한 철학 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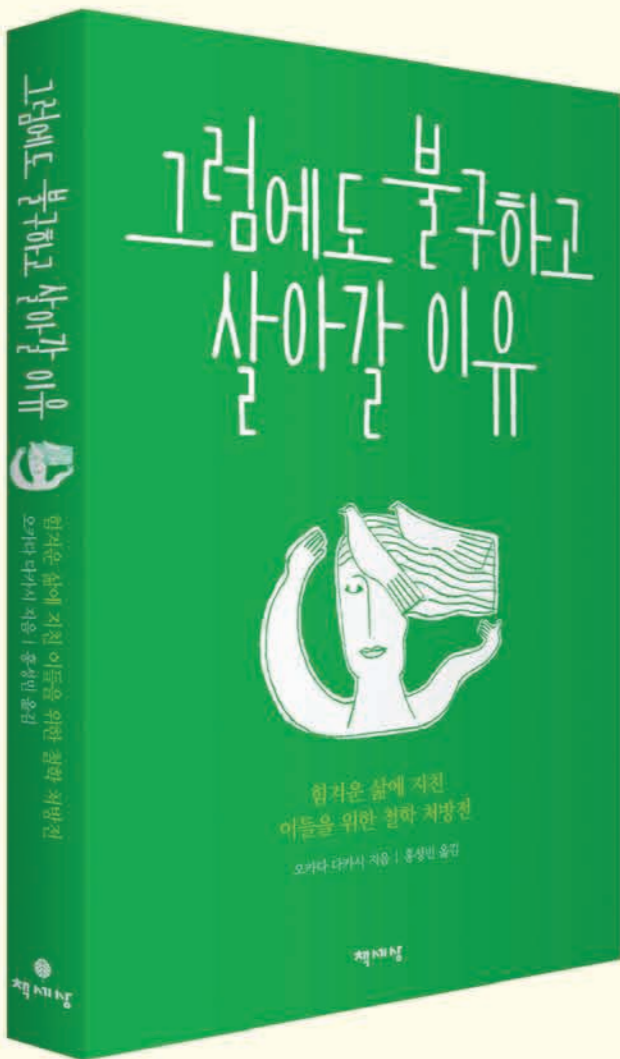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철학이란,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인생 속에만 있다”

쇼펜하우어, 헤르만 헤세, 조르주 상드, 장 자크 루소, 비트겐슈타인...

역사 속 철학자와 문학가의 삶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인 저자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토대로 엮어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사람들 이야기

오키다 다카시 지음 | 홍성민 옮김 | 15,000원

홈페이지 chaeksang.com | 페이스북 chaeksang | 인스타그램 @chaeksang 책세상



‘바이블’ 논란에 ‘삼바’ 사태까지... 이젠 ‘옥석 가리기’ 시동

〈바이오 버블〉

〈삼성바이오로직스〉

‘고개 숙인’ 제약·바이오주 향방은

‘바이오 버블’ 논란으로 제약·바이오주의 조정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며 업종 하락세는 더욱 장기화될 전망이다.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대북주가 강한 테마를 형성하면서 순환매 장세도 이어지고 있다. 바이오주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크게 상승한 후 조정권에 진입했다. 지난달 초 반등하기도 했지만, 4월 중순부터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주목할 점은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글로벌 시장 대비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주가 상승에 비해 실적 등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적용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절가던 바이오주 조정... 기업가치 입증 필수적 = 헬스케어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은 반도체 다음으로 자리 잡는 등 최근 1년도 안 돼 증시 주도주로 성장했다. 다만, 대다수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기반한 상승이 아니라 기대감을 앞세운 테마 투자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상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3월 40만 원대가 붕괴된 데 이어, 다음 날인 4일에는 35만9500원까지 추락했다. 지난달 10일 60만 원을 터치하며 거침 없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주가가 한 달이 채 안 돼 고점 대비 40.08% 하락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하락은 회계처리 의혹이라는 뚜렷한 약재가 반영된 결과라고 해도,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대웅제약, 영진약품 등 코스피 의약품 업종 내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동반 하락세는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 심리 약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대다수 바이오 기업이 시가총액 상위권을 형성하

최근 1년 새 주도종로 부상했지만 전형적 ‘테마 장세’에 피로감 절정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원대 붕괴 후폭풍에 코스피·코스닥 동반 약세

전문가들 “조정국면 장기화 전망... 펀더멘털 우수 종목은 살아남을 것”

고 있는 코스닥시장 상황도 다르지 않다. 올 초 16만 원을 돌파했던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주가는 4일 8만2500원으로 마감하며 반토막 났고 신라젠,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도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고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이달 2일 3만8000원까지 떨어지며 상장 이후 사상 최저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 기업 주가 변동 추이

		2018년 고점	현재 주가(4일 종가 기준)	주가 변동률(%)
코스피	삼성바이오로직스	60만 원	35만9500원	- 40.08
	한미사이언스	11만8500원	7만3500원	- 37.97
	셀트리온	39만2000원	25만 원	- 36.22
	한미약품	63만 원	44만6500원	- 29.13
	대웅제약	22만7500원	17만5500원	- 22.86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	16만4000원	8만2500원	- 49.70
	신라젠	13만1200원	7만5300원	- 42.61
	코오롱티슈진	6만1400원	3만8850원	- 36.73
	바이로메드	30만3800원	20만200원	- 34.10
	메디톡스	76만7700원	66만8000원	- 12.99

가를 기록했다.

단기간 수조 원의 시가총액이 상승한 바이오주는 신약 개발 성과 및 실적 상승 등 기업 가치를 높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하태기 골드브릿지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임상 중인 파이프라인은 많지만, 아직까지 최근의 주가 상승을 증명할 신약 개발 케이스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은 혁신적인 신약도 없고, 상업성에서도 높은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한 사례도 나오지 않아 주가 변동성이 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바이오주에 대한 피로감도 절정에 달한 상황이

다. 실적보다 기대감에 움직인 전형적인 테마 장세로 이어지며 ‘물지마 투자’가 유행했고, 상승 기간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서 약재에 민감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중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바이오주의 실적과 비교할 때 주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대부분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해 볼 때 주가는 당분간 약세를 보일 것이고, 단기기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도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옥석 가리기 본격화... ‘살아남을 곳은 산다’ = 바이오주의 조정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라 전망 속에서도 실적 우량주 및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다. 펀더멘털이 우수한 종목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하락 국면이 상승 기간보다 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이오주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을 내면서도, 시가총액을 설명할 수 있는 소수의 종목은 살아남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이슈가 그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원은 지난달 12일 총자산에서 개발비

비중이 높은 바이오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회계감리를 시작했다. 자산 대비 개발비 비중이 높은 회사, 자산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른 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연구개발(R&D) 자산화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R&D 자산화 비율이 높은 회사로는 셀트리온, 오스코텍, 랩지노믹스, 인트론바이오, 팬젠, 애니젠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바이오 섹터 내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기술특례로 상장한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장기간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일반 상장한 기업 중 R&D 자산화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다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차바이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결국은 R&D 비용 처리에 대한 보수적 회계 적용에 주목해야 한다”라며 “우리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비싼 상황에서 변동성을 동반한 바이오 논란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최대 45%까지

채무감면



가정경제는 물론

나라경제도 튼튼히

키우겠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우뚝!

일어서야 합니다

힘든 생활속에서 쓰러질 때도 있지만 내일을 포기하지 않는 당신에게 대한민국 경제 키우미 캠프가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드립니다

국민행복기금으로 어려운 서민에게 재기의 희망을! 캠프 온비드로 다양한 부동산 채테크 기회를! 국가토지관리 및 미납세금회수로 고개를 튼튼히!

전문가 기고 | 엄 여 진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 연구원

“셀트리온·녹십자 등 대형株 호재 기대 하반기엔 업종 전반에 숨통 트일 수도”

동일한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을 ‘프레임링(Framing) 효과’라고 한다. 컵에 물이 반 정도 담겨 있는 상황에서 ‘물이 반밖에 없어’, 아니면 ‘물이 반이나 남아 있네’라고 생각하는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제약·바이오섹터 내에서 리레이팅과 조정이 반복되는 가운데 바이오 버블 논란까지 불거졌다. 그럼에도 제약 바이오산업의 하반기 투자 관점은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각종 리스크가 제약 바이오 업종의 주가에 크게 반영되며 조정을 받았으나, 하반기에 제약·바이오 업종 대형주에서 호재가 나온다면 업종 전반에 숨통이 트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셀트리온, 코오롱티슈진, 녹십자, 대웅제약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고밸류에이션의 기대감을 충족하는 결실이 가시화되며 업종의 투자 심리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2분기 내 유럽에서 ‘허쥬마’를 출시하며 제품 라인업을 더 추가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미국에 허가를 신청한 ‘트룩시마’와 ‘허쥬마’도 예정대로 하반기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는 2분기에 미국 임상 3상에 진입한다. 녹십자는 3분기까지 면역글로불린 ‘IVIG-SN’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도 올해 FDA 승인 가능성이 있다.

바이오시밀러 업종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고성장을 앞두고 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종목 모두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앞다퉈 허가를 받고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이들 기업의 타겟 시장이 두 배 이상 늘어난다는 의미다.

연구개발(R&D) 투자형으로 체질 개선하는 대형 제약사도 주목해 볼 만하다. 한국형 R&D 전략을 최초로 주창한 한미약품의 사례를



보면, 개량신약에서의 연구개발 역량이 누적돼 파이프라인의 상업화로 이어졌다.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과 같은 한국형 R&D 전략을 표방하고 있다.

현재 국내 대형 제약사는 개량신약 연구개발을 토대로 수익성을 확보하며 바이오신약 R&D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가는 단계다. 향후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개량신약 개발 및 출시도 활발하다. 특히 신라젠, 에이치엘비, 오스코텍, CMG제약 등 항암제 R&D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임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향후 진행 추이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유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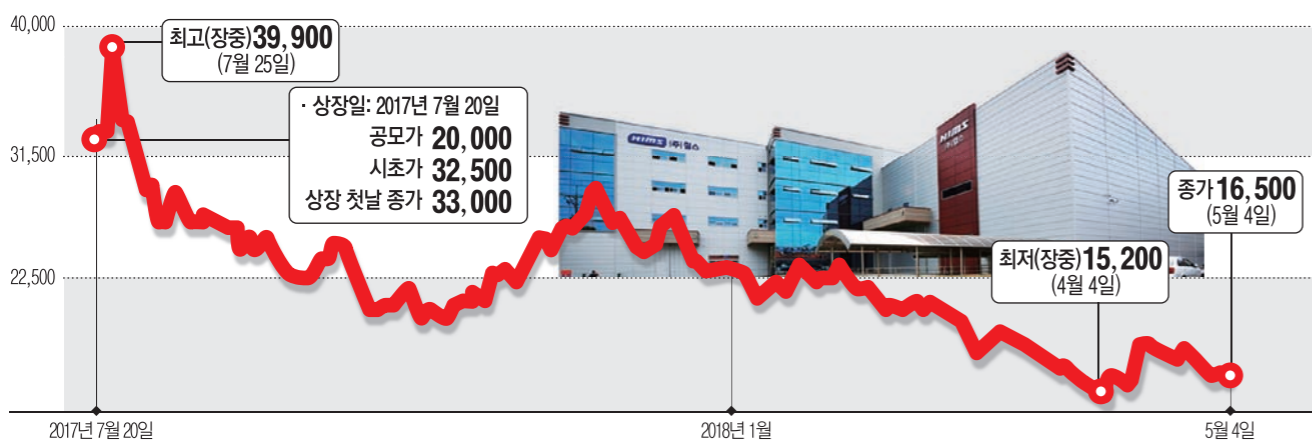
물론 이 같은 호재성 기업들이 많음에도 바이오 버블 논란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점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바이오 버블 논란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으며, 바이오 산업의 주가 리레이팅 역시 국내만의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이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노믹스 관련 기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홍콩 증시에서는 바이오 업종에 전반적으로 관심이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이 같은 전 세계적인 바이오 리레이팅은 바이오 버블보다는 아무도 경험한 적이 없었던 시대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1990~93년, 2000년의 바이오 버블기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리레이팅의 기간이 이전보다 훨씬 길어졌으며, 관련된 기반 기술의 고도화를 거쳐오며 혁신적인 신약이 더 많이 개발되고 있다. 일례로 인간간염바이러스는 세포·유전자치료제뿐 아니라 바이오터키 기반 신약 발굴 기술의 발달에도 크게 기여했다. 제약 바이오 관련 기술의 발전은 맞춤형 의약 시대는 물론 신약개발의 새 지평을 열고 있다.

상장 1년차 새내기株 대분석

④ 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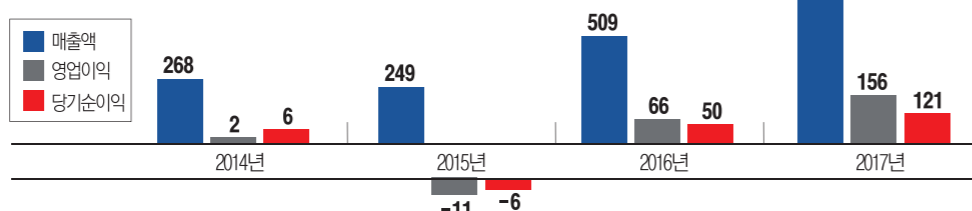
힘스는 1999년 1월 설립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공정 장비 제조업체다. 전 세계 최초로 OLED 마스크 용접기와 검사기, 리퍼어기 등의 장비를 개발, 양산하면서 성장세를 이어왔다. 2006년 삼성SDI와 함께 OLED 장비 개발을 진행, 2009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이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다.

힘스 주가 추이(단위: 원)



힘스 실적 추이(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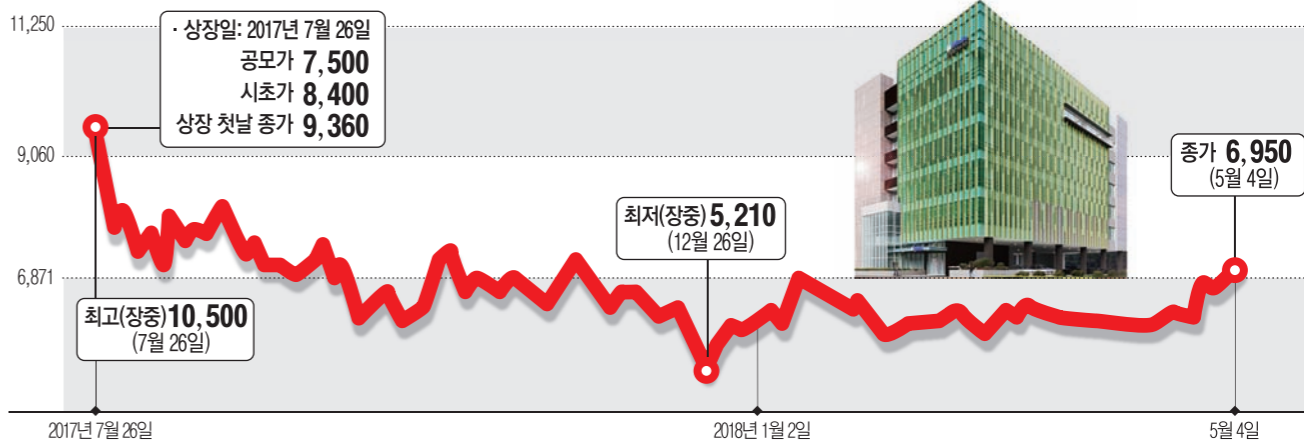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④ 이즈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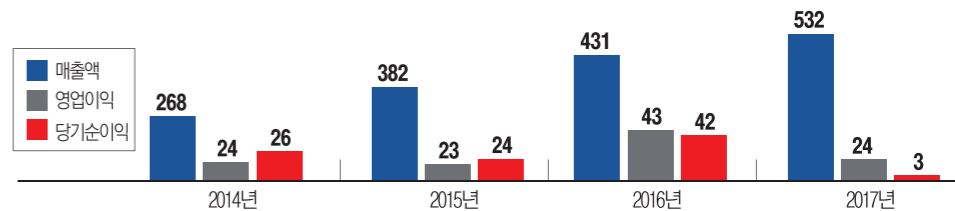
2002년 설립된 이즈미디어는 CCM(Compact Camera Module·초소형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검사 및 조립 장비를 개발·제조·판매하는 업체다. 주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의 2차 협력사로, 주요 고객으로는 오픈로고, 트롤리,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파드론, 엠씨넥스가 있다. 이 가운데 오픈로고와 트롤리는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듀얼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다.

이즈미디어 주가 추이(단위: 원)



이즈미디어 실적 추이(단위: 억 원)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디스플레이 침체로 고전 중국 판로 확대 부활 모색

매출 65% 삼성디스플레이... '다각화' 노력 내년 중 진출...수주 확대 대비해 공장 설립 중 소형 OLED 시장 3년간 46% 성장 기대

◇마스크 공정장비 분야 글로벌 1위 업체 = 김주환 힘스 대표는 동업자 4명과 함께 자본금 5000만 원으로 회사를 세웠다. 이후 힘스는 꾸준한 연구, 노후유 축적을 통해 OLED 마스크 공정장비의 설계부터 전장, 광학, 비전 소프트웨어, 장비제어 소프트웨어, 요소기술 등에 특화된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의 최고 주력 제품은 OLED 장비로, 2016년 기준 전체 매출액(509억 원)의 87.1%를 차지했다.

힘스는 삼성디스플레이를 비롯한 글로벌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에 OLED 마스크 인장기를 공급한다. OLED 마스크 인장기는 OLED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파인메탈마스크(FMM)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다. 발주된 설계, 제작, 셋업, 유지보수에 이르는 OLED 장비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게 힘스의 장점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고객사 비중의 65%에 달하지만, 힘스는 최근 OLED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중국 시장으로도 판로를 확대했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에 따르면 2011년 5.2%에 불과했던 중국 업체의 OLED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0.3%로 증가했다. 이에 발맞춰 힘스는 2015년부터 BOE와 GVO 등 중화권 주요 업체에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전체 매출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8%에서 2016년 19.2%까지 늘어났다.

◇공모가·시초가 대박 났지만... 업황 부진에 주가 급락 = 지난해 7월 20일 코스닥시장에 입성한 힘스의 공모가는 이례적으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1만8800원을 뚫은 2만 원으로 확정됐다. 수요예측에서 경쟁률 729.64대 1을 기록한 데 이어, 청약 경쟁률 역시 795.9대 1로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디스플레이 호황을 반영한 결과다.

시초가도 대박을 터뜨렸다. 공모가보다 62.5% 높은 3만 2500원에 결정, 상장 첫날 3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장 3거래일째인 7월 24일에는 장중 16% 이상 급등하면서 실시간 거래를 제한하는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VI·Volatility Inter-

ruption)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튿날 장중 3만9900원까지 상승, 4만 원 고지에 바짝 다가섰다.

그러나 흥행은 여기까지였다. 상장 사흘 만에 힘스의 주가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7월 25일부터 6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면서 순식간에 23.5% 내려 3만 원대가 무너졌다. 이후 주가는 꾸준히 하락 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1월 반등을 시도하며 3만 원대 진입을 노렸지만, 연말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탔다. 결국, 3월 2일 1만9300원에 마감하면서 증가 기준 2만 원마저 깨졌다.

주가 약세는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LCD산업에 비해 OLED산업은 좀더 상황이 낫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지난해보다 현저히 낮아진 상태다. 힘스는 4월 1만6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 최고가보다는 58.65%, 공모가보다는 17.5% 하락한 수치다.

◇꾸준한 연구·시설 투자·중국 수주 점차 늘어 = 힘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914억 원, 영업이익은 1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9.7%, 137.6%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은 66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중소형 OLED는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LCD를 대체하는 디스플레이 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HS는 글로벌 중소형 OLED 시장 규모가 2017년 188억 달러에서 2020년 274억 달러로 45.7%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스마트폰 중심으로 OLED가 사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차량용 등으로 고해상도 OLED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회사는 플랫폼에서 풀스크린, 폴더블, 롤러블 등 기술 발전으로 신규 디스플레이 장비시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힘스는 코스닥 상장을 통해 유입된 공모자금으로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 매입가 114억 원, 건평 1370평 규모의 공장을 사들였다. OLED 수주 확대에 대비한 생산능력 확충 전략이다. 또한 2016년부터 인공지능(AI), 스마트 팩토리, 5G 등 4차 산업 관련 신규 사업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2019년 본격적인 중국 진출을 앞두고 2016년 90억 원, 지난해 2분기까지 30억 원의 자금을 투입했다.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중국 업체와 총 74억 원 규모의 OLED 공장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국 수주 규모가 점차 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듀얼 카메라 대세로 부상 검사 장비도 동반 신바람

스마트폰 카메라 제조사에 장비 공급 업체와 181억대 계약 등 수주 호조 주가 재상승... "1분기 최대 실적 예상"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상장 초기 잡음 커 = 지난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이즈미디어는 공모가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다. 큰 폭의 적자(순손실)를 기록한 지난해 1분기 실적을 빼고 공모가를 산정했기 때문이다.

당시 상장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은 이즈미디어의 희망 공모가 범위를 7500원에서 1만 원으로 책정했다. 이즈미디어의 지난해 주당순이익(EPS) 591원과 유사 기업들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22.25배를 적용해 주당 평가 가격을 1만3151원으로 한 다음 할인율(23.95~42.96%)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이즈미디어의 EPS에 당시 1분기 15억 원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지 않았다. 만약 1분기 손실분을 반영하면 공모가는 더욱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이 회사는 "환헤지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분기에 일시적 순손실이 난 데다, 비수기 영향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논란은 코스닥히 청약률 부진으로 나타났다. 최종 청약 결과 13.8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청약중거금은 158억 원이 모였다. 상장 직전 이즈미디어가 글로벌 스마트폰 회사들의 듀얼카메라 채택 증가에 따라 수혜 기업으로 주목된 것과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난 것. 시장 관계자는 "매출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거두는 이즈미디어가 환헤지 전략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지적했다.

◇공모가 최하단 결정-시장 소외주로 = 이즈미디어의 공모가는 청약 부진으로 희망 공모가 하단인 75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낮게 책정된 공모가 인헤 상장 초반 매수세가 몰리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상장 첫날 이즈미디어 시초가는 공모가 대비 12% 오른 8400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장중 1만5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상장 차익 물량이 쏟아지면서 9360원에 상장 첫날을 마감했다. 이후 뚜렷한 움직임 없이 공모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뒀던 이즈미디어는 시장의 외면 속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소외주로 전락하고 말았다. 주가 역시 거래량이 부족하다 보니 뚜렷한 매수세 없이 공모가 밑으로 흘러내렸다. 특히 기관 매수세는 거의 실종된 가운데 개인투자자 일부만이 매매에 참여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에는 5210원까지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최저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실적이 많이 감소하면서 주가 역시 하락세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24억 원으로 전년 43억 원 대비 44.2% 추락했다.

◇듀얼 카메라 급증-주가는 상승 무드 = 실적 부진과 주가 하락으로 고충을 겪던 이즈미디어는 최근 주가가 재상승세에 돌입하면서 7000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는 중국 수주가 급증하면서 실적이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카메라 모듈 생산업체의 듀얼 카메라 사업 확대에 관련 검사장비 수요가 급증한 것. 이즈미디어의 신규 아이템인 3D 센싱 카메라 검사장비 또한 연내 공급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김재운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요 핸드셋 업체의 듀얼 카메라 채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요 고객사 듀얼 카메라 모듈 설비 확대가 진행 중"이라며 "글로벌 핸드셋 업체의 듀얼 카메라 채택 비율은 2016년 5.1%에서 2020년 34.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 쿼테크에 공급하는 181억7000만 원 규모의 콤팩트 카메라모듈 검사장비 공급 계약은 올해 1분기에 인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연구원은 "2차 수주 물량은 1차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연내 수주가 가능할 것"이라며 "중국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듀얼 카메라 설비 투자가 지속되는 만큼, 중국 수주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7월 신규 상장 이후 부진한 3분기 실적에 주가는 공모가(7500원) 이하로 하락한 상황이지만,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66.3%, 2619.4% 증가한 850억 원, 87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연구원은 "수주잔고 감안 시 1분기는 매출액 약 230억 원 이상의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개발 중인 3D 센싱 카메라 검사장비도 연내 공급할 전망이어서 관련 시장의 신규 진출도 기대할 만하다"고 말했다. 성시종 기자 s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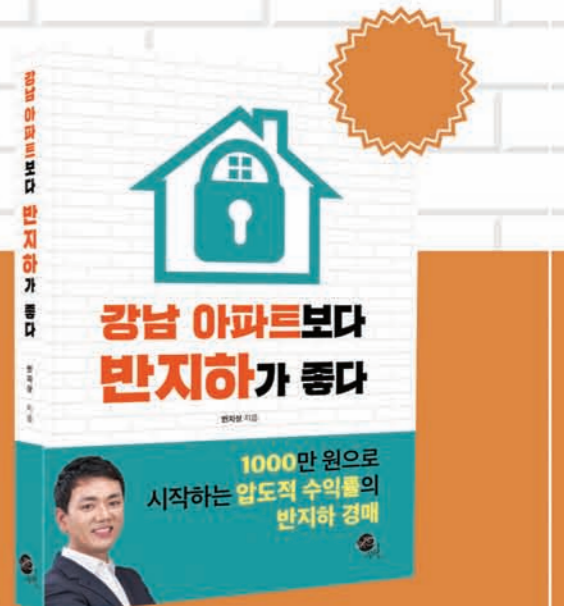


최소한의 비용으로 수익률 10%를 이룰 수 있다!

가성비 갑, 반지하 경매

강남 아파트보다 반지하가 좋다

- #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되는 부의 새로운 추월차선
- # 월급쟁이가 돈 걱정 없이 퇴사하는 법
- #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
- # 경매로 평생 월급 받자



반지하 지음 | 272쪽 | 15,000원

치약도 TS가 만들면 다릅니다.

Trust

SINCE 2010



☑ 의약외품

TS착한치약

TS TOOTHPASTE

7無첨가

(SLS/SLES/파라벤/볼소/트리클로산/사카린/CMIT·MIT)



TS착한치약



하이스틸 79%·SG 81%... 남북 경협 관련주 '전성시대'

지난주(4월 30일~5월 4일) 코스피지수는 전주 대비 31.02포인트(1.24%) 내린 2461.3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30일까지 남북정상회담 효과를 톡톡히 누리며 3거래일 연속 상승했으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가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위축된 데다 미·중 무역갈등 우려가 고조되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지난주 개인이 1조1135억 원어치를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96억 원어치와 8382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베스트&워스트 4월 30일~5월 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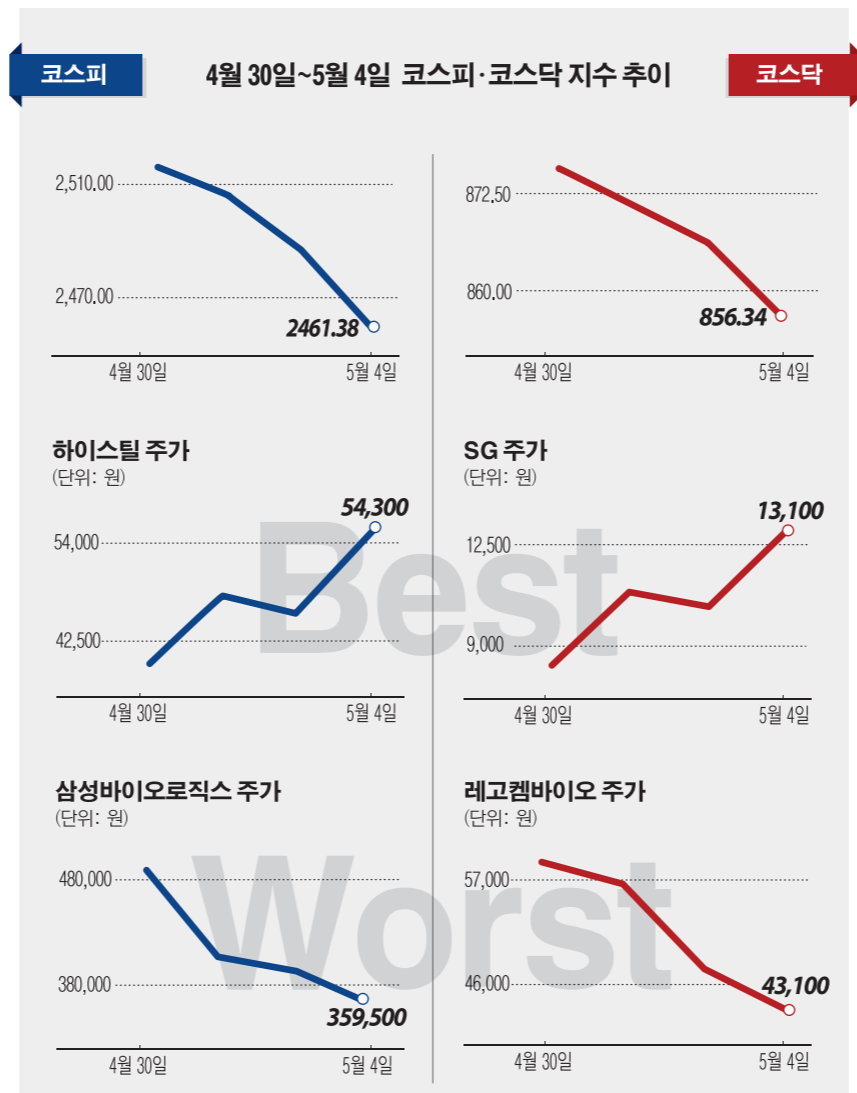
코스닥지수는 전주 대비 30.15포인트(3.40%) 하락한 856.34포인트로 마감했다. 코스닥지수는 지난달 마지막 주 남북정상회담 효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 듯했지만, 이달 들어 일부 남북경협 관련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한 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 등의 영향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까지 급락하며 4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558억 원어치와 1031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반면, 기관은 939억 원어치 팔아치웠다.

◇하이스틸, 미국 관세 면제에 남북 경협까지...79% ↑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전주 대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 대부분은 남북경협 관련주가 차지했다. 하이스틸은 전주보다 79.21% 오르며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하려던 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과 더불어, 철도 등 남북 경제협력에 따라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같은 이유로 동일제강도 전주보다 56.79% 상승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출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불확실성 해소로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금감원 분석회계 의혹에 29% ↓ =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주 대비 28.95%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특별감리장정 결론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2015년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1조9000억 원 흑자로 탈바꿈시켰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소명절차를 지켜본 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여부에 대해 감리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열어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회계 기준에 맞춰 평가 기준을 바꾼 것이며, 행정소송도 불사하



◇SG, 북한 도로 구축에 아스콘 생산 부각... 81% ↑ = 코스닥시장도 코스피와 같이 남북경협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 중 아스콘 생산업체 SG는 전주 대비 81.4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SG는 남북 도로 연결 및 북한 도로 인프라 구축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같은 이유로 아스콘 생산업체 스페코도 전주보다 44.39% 상승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북한 총도로 연장은 2만6164km로 남한(10만5673km)의 25% 수준이고, 고속도로는 729km로 남한(4139km)의 17%에 불과하다. 금융위원회는 2014년 한반도 통일비용을 추정된 보고서에서 북한 내 인프라 육성을 위해 1400억 달러(약 151조 원)가 필요하며, 이 중 철도와 도로 건설에 각각 773억 달러와 374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대동스틸은 전주보다 58.75% 올랐다. 남북 철도사업 및 남북러 천연가스관 연결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고율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남북 철도사업 관련주로 새롭게 부각된 국영지앤엠도 전주 대비 42.14% 상승했다. 국영지앤엠은 한국 철도공사에 무궁화, 새마을 등 국내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유리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

◇외에 일진파워(49.59%), 삼강엔앤티(45.45%), 서암기계공업(42.36%) 등도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제약·바이오 약세 지속... 레고캠바이오 27% ↓ = 지난주 코스닥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에다 고평가 논란까지 겹치며 무진한 모습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이

‘효성오앤비’ 59% ‘아시아중모’ 54% ↑ 조림·조경주 강세
‘대동스틸’ 59% ‘국영지앤엠’ 42% ‘일진파워’ 50% 급등
‘삼바’ 후폭풍에 ‘레고캠바이오’ 27% ‘팜트론’ 26% 떨어져

정부가 북한과 산림 분야 교류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조림·조경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다. 유기질비료를 생산하고 조림용 육묘 재배를 위한 자재를 개발 및 보급하는 효성오앤비가 전주 대비 59.07% 올랐다. 종자를 생산하는 아시아중모와 환경·생태 복원사업 및 조경·원예사업을 영위하는 자연환경도 같은 기간 각각 54.14%, 42.02% 상승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 사각지대로 꼽히는 산림 분야부터 북한과 교류 및 협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판문점선언이행추진위원회 산하에 산림협력연구테스크포스(TF)를 3일 설치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의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할 예정”이라며 “북한의 조림을 돕는 사업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1년간 특별감리를 한 결과 분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고 이달 초 밝힌 영향으로 다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제약·바이오 종목들에서 주가 하락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 주가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은 레고캠바이오(-27.20%)였다. 팜트론(-25.56%), 프로스테비스(-22.65%), 에스맥(-22.64%), 우정바이오(-19.60%) 등도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지난달 26일 상장 유지가 결정되며 크게 뛰어올랐던 디에스티도 차익실현으로 전주 대비 20.00% 하락했고, 전통적인 남북경협 관련주로 꼽히던 재영솔루텍도 차익실현에 전주보다 19.68% 내렸다. 이 밖에 엠앤플러스(-20.11%), 캔서롭(-19.59%), 아이엠(-19.22%) 등이 큰 낙폭을 보였다. 이민호 기자 minor3032@

美 철강관세 면제·남북 경협 겹쳐 ‘동일제강’ 57% ↑
‘대호에이엘’ 58% ‘현대로템’ 55% 등 철도 관련주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 29% ↓ ... 제약·바이오주 동반하락

받아들였다는 분석이다. 또, 남북 철도사업에 따른 기대감에 대호에이엘(57.91%)과 현대로템(54.74%) 등 철도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대호에이엘은 철도차량 생산업체인 현대로템의 1차 협력업체로, 철도차량용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동이지질은 전주 대비 42.41% 올랐다. 이 회사는 ‘월드TBM(Tunnel Boring Machine)’ 공법을 이용한 철도 및 도로 터널 공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 밖에 남북 경협에 따른 건설 관련주 강세로 시멘트 수요 증가가 기대되며 성신양회가 전주 대비 53.64% 상승했고, 희토류 등 북한 자원개발 가능성이 부각되며 신재생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업체 해인이 52.45% 올랐다. 대북 비료 지원 기대감에 비료 제조·판매업체 조비가 41.94% 상승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조비 자본 71.59%를 보유한 지배회사 경흥도 48.18% 오르며 강세를 보

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일 증시 휴장에 따라 2일 개장 직후 전 거래일 대비 15.88% 급락했고, 하락폭을 17.21%까지 늘리며 거래를 마쳤다. 이후 3일과 4일 각각 전 거래일보다 3.47%, 7.82% 내리며 가파른 우하향곡선을 그렸다.

최근 고평가 논란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까지 겹치며 코스피시장에 상장된 제약·바이오주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일제약은 전주보다 21.69% 하락했고, 플루스바이오(-16.84%), 필룩스(-15.76%), 파미셀(-14.44%), 나노메딕스(-14.39%), 보령제약(12.86%)도 모두 약세를 보였다.

이 외에 한전KPS가 올해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15.58% 하락했다. 한전KPS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9%, 36.4% 줄어든 2510억 원과 23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풍부한 현실의 사례를 통해 손쉽게 경제학을 이해한다!

이준구 교수의 열린경제학

- ◎ 담배, 비싸면 과연 끊을까?
- ◎ 1인당 국민소득이 높다고 더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 ◎ 소득이 커지면 행복감도 따라서 더 커질까?
- ◎ 세계 각국의 빅맥 가격을 매년 비교해 보는 이유는?
- ◎ 같은 보고 증고차를 사기가 겁나는 이유는?
- ◎ 누가 중산층이고, 누가 빈곤층일까?

이준구 지음 | 584쪽 | 문우사 | 값 20,000원

“역시,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팔순을 바라보는 학자가 역사와 세상을 바라본 평가이다!!

역사는 강자의 편이었다

힘 있는 자의 말은 언제나 정의(?)로 포장되어 있다. 반면, 힘 없는 민족과 개인은 비극의 삶이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힘이 지배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의 역사를 쓰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 해법은 무엇일까? 인생의 경험을 통해, 역사 속 지도자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한다.

김종재 지음 | 304쪽 | 마인드맵 | 값 15,000원

2017년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우수학술도서

신자유주의 광풍이 휩쓸고 간 미국 사회, 승자독식정치를 통한 감세정책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직지만 부유한 나라 싱가포르,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일까?

싱가포르 다시 보기

싱가포르의 정치·행정 시스템 분석

고길근 지음 | 372쪽 | 문우사 | 값 15,000원

중국의 왕제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황후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을까?

치마폭에 흐르는 중국역사

짜오지엔민 지음 | 광복선 옮김 | 382쪽 | 마인드맵 | 값 16,000원

2000년 동안 이어진 화교들의 삶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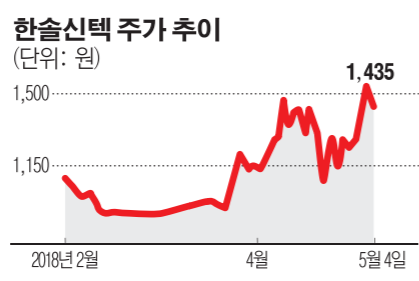
화교 역사·문화 답사기 1

김동하 지음 | 194쪽 | 마인드맵 | 값 12,000원

문의: 070-7550-3758 www.mindtap.co.kr

한솔신텍, 석탄·친환경 산업보일러 ‘활활’

50MW 미만 ‘CFBC’ 서 두각 석탄화력발전 美·日 등 진출 남북 발전소 사업 수혜 기대



한솔신텍은 발전산업용 보일러, 파이프 및 환경플랜트 엔지니어링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다. 특히, PC보일러와 CFBC보일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PC보일러는 미국, 일본, 파나마 등에서의 주요 실적을 달성했으며, CFBC보일러는 삼척그린파워 프로젝트를 비롯해 다수의 프로젝트를 참여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PC보일러는 열효율이 높은 질 좋은 고압급을 미세하게 분쇄해 연소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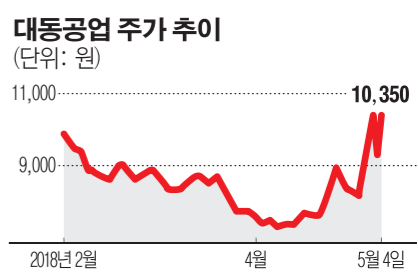
CFBC보일러는 입자가 큰 저급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바이오매스, 가연성폐기물 등을 사용한다. 이산화황 및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대기오염 예방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국내의 경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면서 CFBC보일러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SK증권은 지난해 발간한 리포트에 통해 "2012년 RPS 제도 도입 이후 실제 발주가 나온 것은 2397억 원이며, 한솔신텍이 전량 석권하면서 50MW 이하 중소형 시장에서 차별적 경쟁 우위에 있음을 나타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신경제 구상' 자료를 직접 건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 후, 남한이

북한에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의 경제협력 방안으로 관측된다. 이에 주식시장에서는 보성파워텍, 비에이치아이, 지엔씨에너지, 일진파워, 에이치엘비파워, 큐로, KC코트렐 등이 주목받고 있다. 향후 실제로 발전소 건설 등을 둘러싼 남북 경제협력력이 이뤄지게 된다면, 한솔신텍의 사업적 기회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솔신텍은 석탄을 원료로 한 PC보일러,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한 CFBC보일러 둘 다 대응이 가능하다. 회사 관계자는 "남북 발전소 협력이 잘 된다면, 사업적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석탄 매장량이 높아 석탄 보일러가 가능하면서도, 중국과 맞닿아 있어 환경 문제로 친환경 보일러로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라며 "석탄과 친환경 보일러 모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권태성 기자 tskwon@

농기계 국내 1위 ‘대동공업’ “對北사업 입찰 땐 참여할 것”

사회단체 통해 北에 트랙터 공급 이력... 건설기계도 생산

비영리단체를 통해 농기계를 공급했던 대동공업이 조립과 농기계 등에 사용되는 제품들을 통해 북한 관련 사업 입찰시 참여할 계획이다. 8일 회사 관계자는 "과거 비영리단체를 통해 북한에 제품을 공급했다"면서 "대북 사업이 구체화되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트랙터 등의 제품은 입입 및 조립 등 다양한 작업에서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대동공업은 1947년 설립된 농기계 전문 생산업체로 1975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다. 기어 제작업체 대동기어와 철강업체 대동금속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다. 2011년 국내 농기계 회사 중 처음으로 매출 5000억 원을 돌파하는 등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주된 제품은 이앙기 및 트랙터로 농업 및 입입, 조립업 등에서 쓰인다. 올해부터는 현대건설기계에 지게차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으로 공급하는 등 건설기계 분야까지 넓혀가고 있다. 아울러 전기차 분야로도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대동공업은 현재 르노삼성자동차가 수입 판매 중인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생산을 추진 중이다. 르노 측의 국내 생산 검토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사는 북한 지원 사업에 참여한 전력도 있다. 2001년 이 회사는 사회단체를 통해 북한에 경운기와 이앙기, 육

모상차 등을 공급했다. 이후에도 비영리단체를 통해 농기계 등의 공급은 계속해왔다. 다만, 과거 북한 현지 공장 설립에 대한 무리가 들기도 했지만, 설립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현재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린다는 전제 아래 개성공단 배후지역에 여의도 1.5배 크기의 농업단지 조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업지구 1단계 북측지역 약 460ha(460만㎡)의 땅에 융복합 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북한지역에 조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재현 산림청장이 대북한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개원식 축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 중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의 조립을 돕는 사업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여의도 18배’ 숲 보유 한국제지, 北 조립사업 나서나

남북교류 첫 사업에 주목... ‘적합한 토지 있다면 확대’

인쇄용지 생산기업 한국제지가 조립사업 확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한국제지는 조립사업에 적합한 토지가 있다면 사업 확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 관계자는 "당사가 조립사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 검토를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밟으면서 북한의 조립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는 3일 '판문점 선언이행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회의에서 이날 중 남북 고위급회담 개최를 북에 제안키로 결정했다. 또 산하에 남북 관계 발전, 비핵화 평화체제, 소통 홍보의 3개 분과를 두기로 했다. 남북 관계 발전 분과 아래에는 산림협력연구 태스크포스(TF)를 우선 조직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개원식 축사에서 "유엔의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들은 남북 간 협의와 준비가 되는 대로 시작하려 한다"며 "북한



카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1958년 2월 설립된 한국제지는 197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다. 인쇄 용지인 백상지, 아트지, 복사지, 특수지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연결중속회사는 식품용 포장용기 제조 및 판매업의 한국팩지, 특수지 제조 및 판매업의 국일제지(장기향)유한공사 등 4개다. 인쇄용지 전문 제조업체로 연간 60만 톤의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인쇄용지 내 수 판매량 기준 17.4%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구성은 제품(비도공지, 도공지) 97.4%, 상품(펄프, 도공지) 2.6% 등이다. 김우림 기자 hura@

인트로메딕, 150억 조달 성공

인트로메딕이 총 150억 원의 운영자금 조달에 성공하며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인트로메딕은 주식회사 연우엔컴퍼니를 대상으로 한 100억 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주식회사태승컨설팅을 대상으로 한 약 5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납입 완료됐다고 8일 밝혔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가 기존 연우엔컴퍼니에서 태승컨설팅으로 변경 납입됨에 따라 최대주주도 태승컨설팅

로 변경됐다. 경영권 참여 목적으로 유증 참여 후 태승컨설팅 지분율은 5.89%다. 인트로메딕은 조달 자금을 활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인트로메딕은 경북 영덕군, LS산전, 대명지연, 한국동서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재생에너지 및 팜그리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의 료기기 사업도 중국, 미국 시장 진출이 순조롭게 진행돼 인트로메딕은 올해 큰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트로메딕은 3월 경북 영덕군 관내에 국내 최초 군 단위 팜그리드를 조성하는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고 김남중 대명지연 대표를 각자 대표로 신규 선인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진출했다. 팜그리드는 스마트팜과 스마트그리드의 합성어로 에너지 농업용 복합 플랫폼을 의미한다. 남주현 기자 jooh@

bithumb 빚뽀
www.bithumb.com

빗뽀 지수 (2018년 5월 8일, 08: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비트코인캐시	1,818,000	-100,000 (0.8%)	모네투	259,600	1,000 (0.4%)
리플	916	-37 (0.8%)	비트코인골드	81,100	-3,700 (4.4%)
라이트코인	182,500	-7,500 (0.8%)	이더리움 클래식	25,860	-2,100 (7.5%)
대시	508,000	-27,500 (0.8%)	퀵	23,630	-1,770 (7.0%)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COVERSTORY 같이하는 가족의 가치

PART1. 대전 빵집 가족 - 성심당(聖心堂), 세상의 빵과 같은 존재가 되다
PART2. 소몰리에 가족 - 영동 불휘농장 시나브로 와이너리, 바야흐로 꽃피는 사랑
PART3. 온 가족 최고의 식당 - 빌딩숲 강남에서 오롯이 전통 지켜온 '원주추어탕'
PART4. 패브리 패밀리 - 딸이이는 성장해 엄마의 미성 소리에 반응했다
PART5. 따로 또 같이 - 일도 사랑도 모두 잡은 스포츠 부부

제2인생 인생 황혼의 마지막 빛, 요양보호사
OECD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률은 100명당 19.6명으로,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계 32위 수준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50년엔 100명당 71.5명, 2075년엔 80.1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돈을 버는 사람이면 무조건 어려운 한 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사회 변화 속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직업 중 하나는 요양보호사다. 그러나 장맛길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에 대한 평가는 천차만별이다. 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그런 것일까.

미련 없이 사표를 내고 귀촌 실행한 교사 부부
어딜 가도 꽃잔치가 한창이다. 회가나 불가나 노란 꽃송이들 우르르 일어서 세우는 봄의 힘. 그걸 청춘이라 부른다. 자연의 청춘은 연거푸 돌아온다. 인간의 청춘은 한 번 가면 끝이다. 조물주의 디자인이 애초에 그렇다. 청춘은 인생처럼 이미 아득하게 저물었다. 바야흐로 생애의 가을에 접어든 사람에겐 말이다. 그러나 인생의 가을을 절정으로 가능하는 사람에겐 여전히 봄. 상상의 태도와 관점이 청춘의 사춘기 회춘(回春)을 데려다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인생이란 흥미진진한 극장!

박원식이 만난 귀촌 사람들

내 생애 꼭 해보고 싶은 것 작은 재능이라도 실천해야 나눔이 된다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일들의 목록 버킷리스트.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이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실천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다. 애써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도 어떻게 이뤄가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 이러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매일 버킷리스트 주제 한 가지를 골라 실천 방법과 사례자의 조언을 담고자 한다. 이번 호에는 앞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시니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세션에서 1위를 차지한 '재능기부'에 대해 알아봤다.

레시피 자연의향을 담은 전복죽과속껍떡 간단한 요리법으로 맛과 건강을 동시에

부치지 못한 편지 시인 홍일선 송영 꽃게 '송영 숲'께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광고문의 Tel. 02-799-2698 Fax. 02-799-2666 독자 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마스터라 부를 수 있는 단 하나의 SUV 탄생

SORENTO

THE MASTER



SORENTO THE MASTER

The Power to Surprise

강인한 쏘렌토, 첨단 안전 기술로 또 한번 완벽해진다

고속도로 주행보조 HDA



전방 충돌 방지보조 FCA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후방교차 충돌 방지보조 RCCA



*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www.kia.com
 구입문의 1588-1100
 고객센터 080-200-2000

기아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R20E-VGT 디젤 2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3.8km/ℓ (도시연비: 12.7km/ℓ / 고속도로연비: 15.4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829kg | 복합CO₂ 배출량 138g/km-2등급 • R20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3.1km/ℓ (도시연비: 12.0km/ℓ / 고속도로연비: 14.7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860kg | 복합CO₂ 배출량 146g/km-3등급 • R20E-VGT 디젤 2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3.2km/ℓ (도시연비: 12.1km/ℓ / 고속도로연비: 14.8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900kg | 복합CO₂ 배출량 144g/km-3등급 • R20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4km/ℓ (도시연비: 11.3km/ℓ / 고속도로연비: 13.7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930kg | 복합CO₂ 배출량 150g/km-3등급 • R20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0km/ℓ (도시연비: 11.1km/ℓ / 고속도로연비: 13.4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919kg | 복합CO₂ 배출량 140g/km-3등급 • R20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2km/ℓ (도시연비: 11.3km/ℓ / 고속도로연비: 13.3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959kg | 복합CO₂ 배출량 158g/km-3등급 • R20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1.7km/ℓ (도시연비: 10.8km/ℓ / 고속도로연비: 13.0km/ℓ) | 배기량 1996cc | 공차중량 1989kg | 복합CO₂ 배출량 165g/km-3등급 • R22E-VGT 디젤 2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3.8km/ℓ (도시연비: 12.2km/ℓ / 고속도로연비: 15.1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875kg | 복합CO₂ 배출량 144g/km-3등급 • R22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4km/ℓ (도시연비: 11.4km/ℓ / 고속도로연비: 14.0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15kg | 복합CO₂ 배출량 142g/km-3등급 • R22E-VGT 디젤 2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3.2km/ℓ (도시연비: 12.0km/ℓ / 고속도로연비: 15.1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29kg | 복합CO₂ 배출량 144g/km-3등급 • R22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4km/ℓ (도시연비: 11.4km/ℓ / 고속도로연비: 14.0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50kg | 복합CO₂ 배출량 154g/km-3등급 • R22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2km/ℓ (도시연비: 11.2km/ℓ / 고속도로연비: 13.9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70kg | 복합CO₂ 배출량 157g/km-3등급 • R22E-VGT 디젤 4WD 자동 8단 6362cc 192마력 | 복합연비 12.0km/ℓ (도시연비: 11.0km/ℓ / 고속도로연비: 13.9km/ℓ) | 배기량 2199cc | 공차중량 1980kg | 복합CO₂ 배출량 160g/km-3등급 • 20T-GDI 가솔린 2WD 자동 8단 1995cc 189마력 | 복합연비 18.9km/ℓ (도시연비: 8.2km/ℓ / 고속도로연비: 11.3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00kg | 복합CO₂ 배출량 180g/km-4등급 • 20T-GDI 가솔린 2WD 자동 8단 1995cc 189마력 | 복합연비 18.9km/ℓ (도시연비: 8.2km/ℓ / 고속도로연비: 11.3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40kg | 복합CO₂ 배출량 180g/km-4등급 • 20T-GDI 가솔린 4WD 자동 8단 1995cc 189마력 | 복합연비 18.7km/ℓ (도시연비: 8.2km/ℓ / 고속도로연비: 11.3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889kg | 복합CO₂ 배출량 189g/km-5등급 • 20T-GDI 가솔린 4WD 자동 8단 1995cc 189마력 | 복합연비 18.7km/ℓ (도시연비: 8.2km/ℓ / 고속도로연비: 11.3km/ℓ) | 배기량 1995cc | 공차중량 1949kg-5등급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 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